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이혜숙 문진영

## 연구책임

이혜숙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진

문진영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감염병 등 재난의 상시화에 대응해 유연·탄력적 돌봄 운영체계 세워야

##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령기 아동 돌보는 부모 부담 가중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에 이어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의 돌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기관이 긴급돌봄을 실시했지만, 운영시간 단축, 인원 제한 등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위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19 변종으로 교육과 돌봄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며 아동 돌봄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동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휴원없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이용률 늘어

2022년 6월 기준 서울시 605개 학교의 오후 돌봄교실은 1,889개로 확인됐다. 오후 돌봄 이용 학생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2021~2022년 점차 증가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형인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며 2019~2022년 현원이 꾸준히 늘어났다. 지역아동센터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돌봄공백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기관에 오지 못하는 경우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 등 비대면 돌봄과 급식·꾸러미 배달 등으로 아동을 돌보았다.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고, 학교가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는 2021년 시작해 돌봄 틈새를 지원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휴교 등에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은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에 따른 돌봄공백 최소화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앙정부는 대응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개학 연기,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긴급돌봄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의 긴급돌봄 운영, 근로자·기업 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으로 돌봄공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등교, 원격수업 병행, 밀집도 제한에 따른 인원 제한, 부분 등교 등으로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을 위해 노력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인원 제한 해제, 급·간식 허용, 프로그램 운영 제한이 완화되면서 학교와 돌봄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기존의 방역·돌봄 체계가 지속 운영되고 있다.

## 위드 코로나 시기 돌봄공백 감소 ... 10명 중 1명 “여전히 돌봄공백 경험”

2022년 5월 학령기 아동 자녀 학부모 1,1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 학령기 아동돌봄의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돌봄공백(코로나19 시기 등교하지 못한 경우,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평일 오전·낮시간 동안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시간을 보낸 경우)을 경험한 비율이 2021년 1학기 17.4%, 2022년 1학기 13.1%로 조사되었다. 돌봄공백 비율은 4.3%p 줄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이 돌봄공백을 겪고 있으며, 응답 학부모의 40.8%가 자녀돌봄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학년 자녀, 맞벌이 가정,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돌봄공백이 더 많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를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는 갑작스러운 돌봄인력 부재 또는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대체 가능한 기관이나 인력을 구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 일상회복 단계에 학부모 “돌봄기관 환경개선, 접근성 제고·비용지원 희망”

학부모가 밝힌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서비스 기관의 시설·공간 환경개선(21.0%)’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은 ‘일시·긴급 돌봄 상시운영(17.9%)’, ‘접근성 향상(14.6%)’, ‘오전·저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시간대 운영(14.3%)’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1인당 면적 확보와 인원 제한이 요구되고, 급·간식 제공과 일시 격리를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해졌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기관의 환경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기관도 아동 수용에 한계가 있어 일부는 자격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병 위기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유사 감염병 상황에 적합한 자격기준 정비가 요구된다. 그밖에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필요한 자녀 돌봄 지원 1순위는 ‘돌봄비용 지원(26.8%)’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23.0%)’,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13.0%)’, ‘재택근무 및 단축·유연근무제 활성화(12.9%)’, ‘가정 내 아동급식 배달(12.3%)’ 순이었는데, 주로 돌봄 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해 돌봄 중심 협조체계, 예측가능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사태 기간 학교 휴교 등으로 수업이 중단된 동안에도 지역사회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은 중단없이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현장에서는 기존 돌봄 시간에서 오전, 저녁시간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급·간식 제공, 등·하원 지도, 행정업무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 기간 돌봄서비스 기관의 중요성과 개선점이 상당 부분 도출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더 많은 돌봄수요를 확인하였고 비대면 돌봄, 온라인 학습지원 등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필요한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더욱 기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 실무자는 물론 학부모도 자녀의 돌봄을 위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 재난 상시화에 대응하는 유연·탄력적인 학령기 아동 돌봄 운영체계 지향

2년여의 코로나19 기간에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19 변종 발생 등으로 감염병 위기 인식이 변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학령기 아동 돌봄 요구는 여전하다. 감염병 등의 재난에 상시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아동돌봄 운영이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 시기 학령기 아동 돌봄은 중단없는 돌봄(연속성), 격차 없는 돌봄(형평성), 빈틈없는 돌봄(연계성)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먼저 중단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돌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돌봄 공간은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학생 1인당 면적 확보와 격리 등을 위해 최소 6.6m<sup>2</sup>의 단위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돌봄 공간 구성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적용하고, 격벽시설로 구분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돌봄 인력은 재난 상황 시 발생하는 추가 업무와 돌봄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현재보다 약 1.5배의 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대체인력 풀 운영으로 비상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침, 저녁돌봄 등 돌봄시간 연장으로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와 돌봄기관 관계자 의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급·간식과 관련해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등으로 혼자 있는 아동을 위한 중단없는 급·간식 제공이 필요하다.

## 누구나 격차없는 돌봄 위해 돌봄정원 계속 확대하고 돌봄비용 지원해야

격차 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정원을 조정하고 돌봄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지금도 돌봄 정원에 제약이 있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정원 제약은 더 커진다. 돌봄기관의 정원을 지속 확대하고 재난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1.5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가 정원 확대 시 초등돌봄교실은 교내 1, 2학년 교실을 활용하여 공간부족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재난 상황 시 추가로 돌봄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필요한 지원으로 돌봄 비용을 손꼽은 학부모가 많았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추진 경험이 있는 돌봄 비용지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로 대응 방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빈틈없는 돌봄 실현하려면 학교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 점검 필요

빈틈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돌봄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감염 상황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돌봄협의회 조성으로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돌봄 이용을 연계하는 돌봄 연계통합시스템(포털시스템)은 긴급상황에서 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별도의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문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 목차

<b>01 연구개요</b>	<b>2</b>
1_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방법	3
<b>02 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시 초등돌봄 운영현황 분석과 대응</b>	<b>8</b>
1_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시 초등돌봄 운영현황 분석	8
2_코로나 시기 초등돌봄 대응	13
<b>03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 분석</b>	<b>24</b>
1_조사 개요	24
2_설문조사 결과 분석	29
3_설문조사 시사점	69
<b>04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FGI 조사결과</b>	<b>74</b>
1_FGI 개요	74
2_FGI 결과 분석	76
3_FGI 시사점	91
<b>05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지원 방향과 전략</b>	<b>96</b>
1_방향과 원칙	96
2_전략	97
<b>참고문헌</b>	<b>109</b>
<b>Abstract</b>	<b>111</b>

# 표 목차

[표 2-1]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운영현황	9
[표 2-2] 연도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	10
[표 2-3] 자치구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	10
[표 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11
[표 2-5] 학교돌봄터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11
[표 2-6] 방과후 돌봄서비스 개요	12
[표 2-7] 코로나19 관련 중앙부처 대응	13
[표 2-8] 시기별 코로나19 대응지침 변화	18
[표 2-9] 학령기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22
[표 3-1] 실태조사 표본설계	24
[표 3-2] 목표 표본 할당 비중과 실제 응답자 비중	25
[표 3-3] 실태조사 주요 내용	26
[표 3-4] 응답자 특성	27
[표 3-5]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28
[표 3-6] 1주일 평균 등교 일수(대면수업)	30
[표 3-7] 2021년 1학기 평일 오전/낮시간 돌봄제공자	32
[표 3-8] 2022년 1학기 평일 오전/낮시간 돌봄제공자	33
[표 3-9]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돌봄의 어려움 경험 여부	34
[표 3-1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돌봄 어려움 지속기간 및 추가 돌봄 비용 여부	35
[표 3-1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돌봄 추가 돌봄 비용	35
[표 3-1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돌봄 어려움 경험 시 대처방법	37
[표 3-13] 사교육(학원/방문과외/학습지 등) 이용 여부	38
[표 3-14] 자녀돌봄 제도 이용 경험	40

[표 3-15] 2021년과 2022년 1학기 전체 학년 학기 중 방과후 생활	43
[표 3-16] 돌봄공백 비율	44
[표 3-17] 자녀 혼자 또는 자녀끼리 보낸 주당 평균 시간	45
[표 3-18] 자녀 혼자(자녀끼리) 시간을 보낸 이유	47
[표 3-19]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48
[표 3-20]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대면수업 진행 현황	49
[표 3-21]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에 가지 못한 경우 제공받은 돌봄서비스(중복응답)	50
[표 3-22] 향후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의향	51
[표 3-23]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이용을 원하는 공적 방과후돌봄 기관	52
[표 3-24] 향후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있는 이유	55
[표 3-25]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미이용 시 자녀 돌봄 계획	56
[표 3-26]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미이용 의향 이유	57
[표 3-27] 위드 코로나 시기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개선할 점	60
[표 3-28] 위드 코로나 시기(2022년 1학기) 자녀 돌봄에 대한 우려점(1순위)	63
[표 3-29] 위드 코로나 시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상의 어려움(1순위)	65
[표 3-30] 위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에 필요한 지원	68
[표 4-1] FGI 조사 개요	75
[표 4-2] FGI 종합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개선점	91
[표 5-1] 기관별 시설기준	98
[표 5-2] 공적 방과후 서비스 기관 유형별 이용료	103
[표 5-3]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비용 지원	103
[표 5-4]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코로나19 대응지침	105
[표 5-5] 조례 조항 추가(안)	107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5
[그림 3-1] 2021년과 2022년 1학기 등교일(단위: %)	29
[그림 3-2] 등교하지 않는 평일 오전/낮 시간 주된 돌봄 제공자(단위: %)	31
[그림 3-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 어려움 발생 시 대처방법(%)	36
[그림 3-4] 2021년과 2022년 1학기 1~3학년 학기 중 방과후 생활	42
[그림 3-5]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지낸 일주일 평균 시간	46
[그림 3-6]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지낸 이유(%)	46
[그림 3-7] 기관 유형별 대면수업 진행 비율	49
[그림 3-8] 위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에 대한 우려점(1순위)(%)	62
[그림 3-9] 위드 코로나 시기 보건상의 어려움(1순위)(%)	64
[그림 3-10] 위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에 필요한 지원(%)	67
[그림 5-1]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 돌봄 방향 및 전략	97
[그림 5-2] 돌봄공간 구성 전후	99
[그림 5-3]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대체인력 풀 운영 사례	100
[그림 5-4] 지역사회돌봄협의회	104

01

## 연구개요



1\_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 01. 연구개요

## 1\_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상 초유의 팬데믹(pandemic) 상황이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나는 동안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는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는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휴교와 등교(또는 부분 등교)가 시시각각 달라지곤 했다. 때로는 자녀의 학교 또는 학급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갑작스럽게 등교할 수 없는 상황도 속출하여 일하는 학부모가 대처하기에 버거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했지만, 상시적인 초등돌봄과는 다르게 운영되었다. 특히 시간이 단축되어 운영되면서 저소득층 외에 맞벌이 가정, 일반 가정에서도 학령기 아동 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2020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5,05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학부모의 23.1%가 방과후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년별, 학급별 교차 출석, 요일제 출석과 공공·민간 시설의 휴원, 긴급돌봄의 제한적 실시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지원 외, 2020).

일상적 회복에 따른 전면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다시 코로나 변종 발생에 따른 부분 등교로 전환 및 전면등교가 교차되면서 위드 코로나<sup>1)</sup> 상황에서도 학령기 아동

1) 위드 코로나(단계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대두된 개념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임.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정의 없이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함(네이버 지식백과, 2022. 4. 14. 검색). 이 연구에서는 '위드 코로나', '일상적 회복'을 상황에 따라 사용함

의 돌봄은 학부모에게 부담인 실정이다.

마을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도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이 정원의 50%만 이용하는 등의 조치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도 부분 운영 및 인원 제한 등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운영 상황이 달라졌다. 따라서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학령기 아동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한 시점(2021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학령기 아동의 돌봄 실태를 상세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시작되었으나, 이후 코로나19의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2022년 상반기에는 거리두기에 따른 모든 조치가 전면 해제되는 등 방역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던 2021년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실시한 2022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조사·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 2\_연구내용과 방법

### 1) 연구내용

#### (1) 초등돌봄 정책과 사업 분석

초등돌봄 정책과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발표한 지침을 토대로 코로나19 발생단계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의 초등돌봄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초등돌봄교실 등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 (2) 아동돌봄 실태분석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 아동돌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던 2021년과 위드 코로나 시기인 2022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학교와 방과후 생활, 돌봄공백 등 아동돌봄 실태와 감염병 위기 상황의 정책수요,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코로나19 시기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 (3) 아동돌봄 지원방안 제시

정책 및 사업 분석, 실태조사 분석, FGI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아동돌봄 지원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 2)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020년 초기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한 보도 자료 및 지침 등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 아동센터, 학교돌봄터 등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현황과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 제도를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등돌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2) 설문조사<sup>2)</sup>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위드 코로나 시기의 아동 돌봄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2021년 1학기과 2022년 1학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기별 변화를 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1,18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면담 및 초점집단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sup>3)</sup>

초등돌봄서비스 기관의 관계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돌봄 변화와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중구, 성동구, 강서구, 동작구, 동대문구의 현장 전문가를 직접 대면 FGI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대면이 어려운 현장 전문가는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FGI와 서면 자문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돌봄의 어려움과 변화 그리고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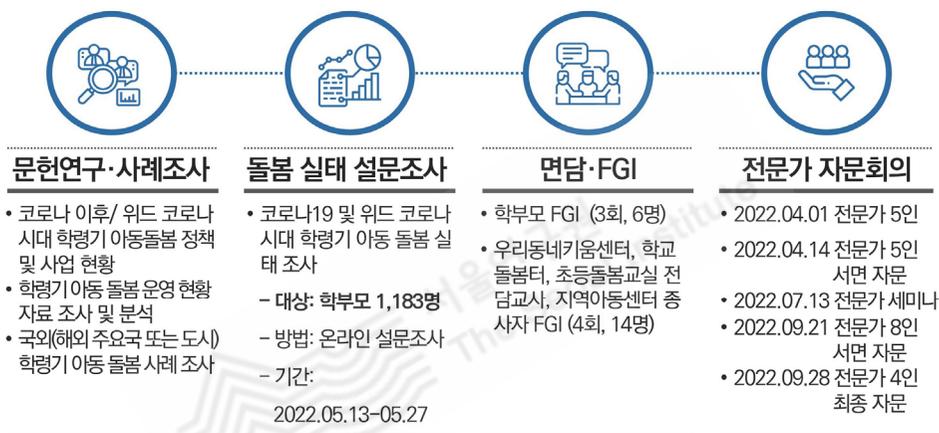
2)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은 제3장 제1절 참조

3) 구체적인 FGI 방법은 제4장 제1절 참조

#### (4) 자문회의 및 전문가 세미나

위드 코로나 시기의 학령기 돌봄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 개발과 검토 단계에서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실태조사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 결과 및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학령기 아동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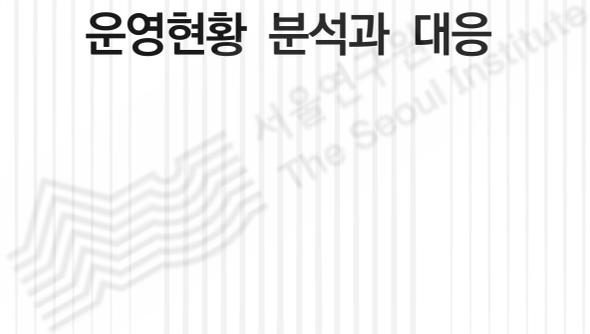
이상의 연구내용과 방법에 따른 연구 추진체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02

**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시 초등돌봄  
운영현황 분석과 대응**



- 1\_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시 초등돌봄 운영현황 분석
- 2\_코로나 시기 초등돌봄 대응

## 02. 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시 초등돌봄 운영 현황 분석과 대응

### 1\_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시 초등돌봄 운영현황 분석

#### 1) 초등돌봄교실

2004년 시범실시 이래로, 교육부 소관의 초등돌봄교실은 별도의 전용 또는 겸용 교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이다.<sup>4)</sup>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운영이 추진되었다. 「2018~2022년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계획」에 따라 돌봄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증설했지만, 공급 대비 수요자 폭증으로 여전히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수업 전의 아침돌봄, 오후 1~5시의 오후돌봄, 5시 이후의 저녁돌봄으로 유형이 나뉜다. 아침돌봄은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요건에 따라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며, 오후돌봄은 초등 1~4학년 중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담임 추천대상자 등 돌봄이 꼭 필요한 대상으로 학생을 선정한다. 개인 및 단체활동의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은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고학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에 주1회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sup>5)</sup>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 신학기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대비 참여 학생 수가 상당수 감소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오후돌봄 교실 수와 참여 학생 수 모두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4)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2.do>)

5) 2021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3.

[표 2-1]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운영현황

연도	학교수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개)	참여 학생 수(명)	운영 교실 수(개)	참여 학생 수(명)	운영 교실 수(개)	참여 학생 수(명)
2019	600	1,734	39,391	319	2,103	320	4,555
2020	602	1,751	32,952	258	1,310	184	2,851
2021	603	1,862	37,989	263	1,422	306	5,705
2022	605	1,889	38,740	266	1,308	374	7,196

출처: 초등돌봄교실 학교알리미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현황, 2022년 6월 공개자료.

## 2) 우리동네키움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시만의 명칭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2020년 동안 긴급 돌봄체제로 운영되었다(김송이 외, 2021). 서울시는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공백을 해결할 목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운영하여 온마을 아이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료(간식비 포함)는 자치구별로 다양한데, 무료인 자치구도 있고 월 10,000원~50,000원 또는 하루 2,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센터도 있다. 방학 중 급식비용도 기관별로 다양해서, 1식 2,000원~ 7,000원 또는 수요가 있을 때만 제공하거나 개별 도시락, 도시락 단가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꾸준히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수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센터가 확대 개소 운영됨에 따라 정원과 현원 모두 증가하였다. 2022년 4월 기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210개소이다([표 2-2], [표2-3] 참조).

[표 2-2] 연도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

연도	자치구	기관 수(개소)	일반형 <sup>1</sup>	융합형 <sup>2</sup>	거점형 <sup>3</sup>	정원(명)	현원(명)
2019	18	50	50	-	-	1,165	798
2020	24	126	118	8	-	3,152	2,540
2021	25	193	172	18	3	4,780	5,062
2022	25	210	187	20	3	5,167	5,282

출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내부자료, 2019년~2021년 각 연도 12월 말 기준, 2022.4월 말 기준

주1. 일반형 (만 6~12세, 초등학생 대상) 집 또는 학교와 도보 10분 거리 이내 생활 근거리에서 정기·일시·긴급 돌봄 제공

주2. 융합형: (만 6~12세, 초등학생 대상) 저녁·주말돌봄 제공 강화, 마을단위 돌봄 네트워크 지원

주3. 거점형: (권역 내 돌봄기관 등록아동 우선 이용, 지역주민 대상) 지역사회 초등돌봄시설의 공간,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세 보완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지원(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 p.28.)

[표 2-3] 자치구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소)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종량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개소수	5	7	8	11	10	4	3	10	6	27	9	7
관악구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북
2	7	3	4	17	13	3	12	6	8	16	7	5

출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내부자료, 2022년 4월 말 기준

###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0조~52조, 제54~7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다(보건복지부, 2022). 2004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하였다(이혜숙 외, 2018). 법제화 후 지역아동센터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운영도 확대하게 되었으며, 2018년에는 이용 아동의 기준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아동 중심이었던 운영에서 일반아동의 이용 비율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상 4단계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는 모니터링 및 급식 배달도 지원하였다.

[표 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연도	시설수	정원	현원	종사자수
2019	436	12,955	-	1,071
2020	429	12,809	-	1,064
2021	429	12,740	11,746	1,064
2022	428	12,653	11,561	1,062

출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내부자료, 2019년~2021년 각 연도 12월 말 기준, 2022. 5. 기준

#### 4) 학교돌봄터

학교돌봄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시행한 사업이다. 20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하는 통합 돌봄 모델로서, 유휴 교실을 활용해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가 운영 주체로 돌봄을 제공하고, 학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며, 위탁 시에는 공익 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위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

학교 돌봄터는 돌봄의 틈새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돌봄(13~17시), 아침 및 저녁돌봄을 운영한다. 2021년 9월부터 전국 10개, 서울시는 중구에 8개 학교가 학교돌봄터를 운영하며, 돌봄인력 2명에 급·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돌봄보안관 배치, 입·출입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한다.<sup>6)</sup> 현재 서울시에는 중구의 8개 학교에서 학교돌봄터를 운영 중이다.

[표 2-5] 학교돌봄터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연도	학교 수	교실 수	돌봄종사자수	정원	현원
2021	8	26	76	650	555
2022	8	27	75	650	576

출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내부자료, 학교돌봄터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서

<sup>6)</sup>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391>(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상의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6] 참조).

[표 2-6] 방과후 돌봄서비스 개요

구분	초등돌봄교실 (오후 돌봄 기준)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소관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근거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49-2) 서울시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9조	-
지원 대상	초등학생 저학년	만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만 18세 미만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우선 이용 대상자 선정 가능)
운영 주체	단위 학교	지자체 (민간위탁 가능)	법인, 개인 등 민간, 지자체	지자체·학교
운영 방식	시·도교육청 계획·지도에 의해 단위 학교에서 운영	자치구 직영방식 (위탁운영 가능)	시·군·구에 등록된 법인, 개인 등 신고 운영	지자체 직영 (위탁운영 가능)
지원 내용	돌봄, 교육 및 일부 급·간식비 지원	돌봄, 프로그램 및 일부 급·간식비 지원	돌봄, 교육,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돌봄서비스
예산	-	일반·융합형 48,745백만 원 거점형 8,438백만 원	69,927백만 원	963백만 원
지원 형태	전액 지원: 저소득 및 교육비 지원 대상(미지원은 비용 부담)	일반형, 융합형은 정기돌봄 월 5만 원 이내, 일시돌봄 일 2,500원 이내/ 거점형 일시돌봄 일 2,500원 이내, 연계돌봄 무료	전액 지원 (일반아동은 월 5만 원 이내 부담 가능)	무료
현황	605개 학교 1,889개 교실	210개소	428개소	8개 학교 27개 교실

출처: 2021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6,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22,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연구진 재구성

## 2\_코로나 시기 초등돌봄 대응

### 1) 중앙부처의 대응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및 지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 학생의 감염을 방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학생의 외부 접촉·이동 차단을 위해 학교 휴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령기 아동의 학습권과 성장·발달 저해, 돌봄공백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등교수업을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표 2-7) 참조).

[표 2-7] 코로나19 관련 중앙부처 대응

날짜	부처	주요 내용
20.02.02	교육부	학사일정 조정방안 관련 대응지침 발표
20.02.23	중앙정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응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
20.02.23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개학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
20.02.28	관계부처 합동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긴급돌봄 지원 방안 발표
20.03.02	교육부	신학기 개학일 3월 9일에서 23일로 2주 추가 연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 :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 온라인 학급방 개설, 긴급돌봄, 유연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제 적극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0.03.27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
20.03.31	교육부	온라인 개학 실시
20.05.29	교육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20.07.31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 발표
20.08.25	교육부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20.08.27	교육부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 마련
20.11.01	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등교 원칙 조정
21.08.04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
21.08.09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발표
21.10.29	관계부처 합동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22.02.07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발표 -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에 방점
22.04.15	보건복지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구성



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 4월 처음으로 유례없는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로 교육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교내 밀집도 최소로 수업, 급식, 이동과 쉬는 시간의 학생 분산으로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1/3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에도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추가적인 돌봄 수요에 인력과 공간 확보 등 협력할 것을 계획하였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등에는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강화조치를 시행했는데, 여러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집단 수업으로 다른 학교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학 연기, 학교의 등교인원 축소 지침에 따라 격일(주)등교, 분반제 운영, 대면과 원격수업의 병행 등으로 학령기 아동 특히 저학년 아동의 가정 돌봄 부담이 증가하였다. 학원 역시 강력한 운영 제한 방침으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던 학부모 중 학원에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가정의 돌봄공백이 커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원격수업의 방식과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을 결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07.31). 1단계에는 등교·원격수업 병행으로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를 권장하였고, 3단계에도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로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유지를 권고하였다. 3단계는 원격수업 또는 휴업하는 것으로 전국 단위로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도록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밀집도 적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기초학력 지원 등에 한해서는 밀집도 대상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2020년 8월 15일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육부는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돌봄이 필요한 자녀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10명 내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급식(중식)을 제공하고, 방과후 강사,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과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 재배치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08.25).

이와 같은 정부의 원격수업 대비 긴급돌봄 운영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4단계 적용으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되자 긴급돌봄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학교 인력과 공간의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긴급돌봄 수용이 어렵기 때문이었다.<sup>8)</sup>

2020년 8월 교육부는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다. 전교생이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활용해 원격학습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에는 학교급식을 계속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학교 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조정되었으며, 2021년 1월에는 개학 연기 없이 학기를 정상 시작하고 지역·학교별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8월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의 공급 확대와 19시까지 돌봄 운영시간 확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의 확보,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중앙의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이 수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응지침을 개편하였다.

## □ 위드 코로나 시기 주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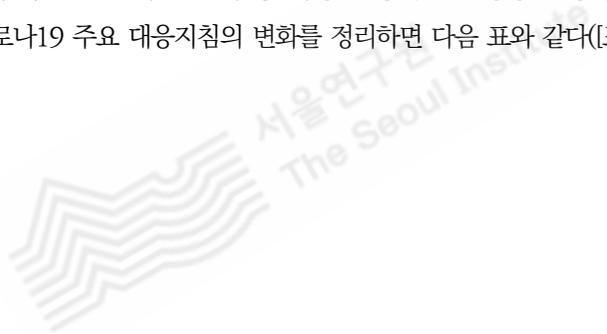
2021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sup>9)</sup> 기본적으로는 기존 4단계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단계적으로 단계별 수칙 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정비하기로 계획하였다. 교육분야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1월 22일부터 학교 방역 체계 하에 수도권 전면등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학기간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2022년 3월 새학기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의 단계적 실시를 계획했다. 11월 22일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하고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였다.<sup>10)</sup>

<sup>8)</sup> 한겨레, 2021.07.14., 김지은, "문 닫힌 수도권 초등학교... '긴급 돌봄' 신청 몰려 복새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3576.html>

<sup>9)</sup>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1.10.29.,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로운 일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응 지침을 개편하였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였는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 정원 제한을 없애고, 아동을 제외한 프로그램 참여자가 접종완료자일 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시설 내 칸막이, 띄어 앉기 환경에서 급·간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sup>11)</sup>

2022년 초에는 2021년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교육부는 2022년 1학기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방역자원 확충 등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기존 매일 등교를 유지하고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돌봄도 정상운영하고 일부 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상 정부의 코로나19 주요 대응지침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2-8) 참조.



10) 교육부 보도자료, 2021.10.29.,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 안전한 방역을 전제로 유·초·중등 및 대학 일상회복 전환 추진 -”.

11) 서울시 내부자료, 「코로나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8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 개편사항 안내)」.



## 2) 학령기 아동돌봄 관련 제도적 대응

중앙정부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기관의 휴교, 휴업 조치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무급)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sup>12)</su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항제3호에 따르면, 감염병의 확산 등의 이유로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2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2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 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 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10인 미만 사업장 28.2%,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61.1%였다.<sup>13)</sup> 이 사업은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2022년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의 확산·지속에 따라 2022년에도 시행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 임금으로 한정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2시간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그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대기업의 임금감소 보전금은 주 15시간~25시간 미만으로 단축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의 경우 60만 원 한도에서 8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다. 지원대상 근로

<sup>12)</sup>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217](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217))

<sup>13)</sup>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110](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110))

자의 근속기간 기준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14)</sup>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은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해 경직적·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의 유형이 있다.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소속 근로자에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0년 당시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 원이었다.<sup>15)</sup> 유연근무제 방식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에 지원이 가능했던 것에서 2021년 11월 시차출퇴근제 지원이 폐지되고 1년간 최대 지급액이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36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4월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포인트(상품권)를 지급한 사업이다.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사용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였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앞서 아동돌봄쿠폰 지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9~10월 기간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한 사업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 아동에는 아동돌봄을 지원하는 1인당 20만 원을, 중학교 재학생 아동에는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1인당 15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의 시간제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의 종일제 돌봄, 소득유형에 따른 정부의 차등 지원이 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시군구별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을 연계해 운영한다.<sup>16)</sup> 서울시는 2022년 3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비용 부담 완화와 돌봄공백 예방을

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9](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9))

15) 관련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02.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p.12.

1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관련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02.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p.15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을 시행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소득기준에 따라 기존에 이용료의 15~100% (시간당 1,583원~10,550원)을 부담했던 것에서 특례지원은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6,330원)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되며 시 예산 및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sup>17)</sup>. 이상의 학령기 자녀돌봄 관련 제도를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sup>17)</sup> 휴교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한 자녀돌봄 지원 제도는 물품지원(53.2%)이었고, 유급휴가(49.2%), 재택근무(36.1%), 유연근무제(31.9%), 무급휴가(22.4%), 근로시간단축(21.9%), 육아시간지원(18.3%) 순으로 조사되었다(최윤경,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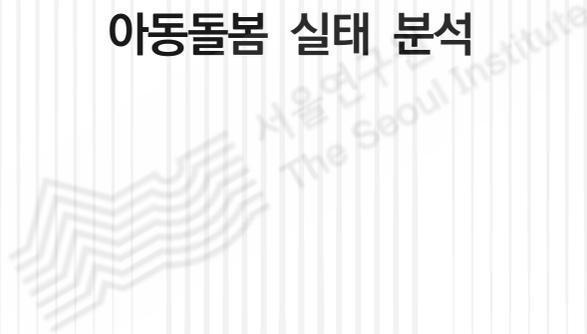
[표 2-9] 학령기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구분	소관부처	주요 내용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 - 자녀 양육 사유로 사용 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 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 1인당 일 5만 원(한부모 및 부부 합산 최대 10일)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보장,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위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 - 위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 한시적 대폭 인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활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아동돌봄쿠폰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만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대상 - 아동 1인당 4개월, 40만 원 상당의 돌봄 쿠폰 지급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비대면 학습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교육부	-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 미취학 아동, 초등 재학생 아동에 아동 특별돌봄 지원 1인당 20만 원 지원 - 중학생 재학생 아동에 비대면 학습 지원 1인당 15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지원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p.40. 연구진 재구성

03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 분석



- 1\_조사 개요
- 2\_설문조사 결과 분석
- 3\_설문조사 시사점

## 03.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 분석

### 1\_조사 개요

#### 1)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설계 개요

##### □ 조사 표본과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목적은 위드 코로나 시기 학령기 아동 돌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코로나19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령기 아동 돌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는 2022년 5월 13일~5월 27일(15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조사 시점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의 학부모이며, 목표 표본 수는 1,000명 이상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학부모 1,183명이 응답하였다. 모집단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생활권역별 학생 수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조사 표본은 서울시 5대 권역 모집단 수 기준 제공근 비례 할당 방법으로 설계하였다([표 3-1] 참조).

[표 3-1] 실태조사 표본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자	서울시 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목표 표본수	1,000명 이상
표본 할당 방법	서울시 5대 권역 기준 모집단 수 기준 제공근 비례 할당
	- 남녀 응답자 비중 각 50% (일부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
	- 초등학교 저학년 60%, 고학년 40% 비중 고려
	- 2명 이상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저학년 자녀 기준 설문

표본 구성 시 특정 성별이나 일부 연령대가 과대 표집되지 않도록 남녀 응답자 비중은 각 50%, 초등학교 저학년 60%, 고학년 40% 정도가 되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상대적으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 수요 파악을 위해 여러 명의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 여러 명의 자녀 중 1학년 자녀가 가장 어린 경우에는 2021년 1학기의 경험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2학년 이상의 자녀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제 응답자는 목표 표본보다 많은 1,183명으로, 남성과 여성 비중이 거의 유사하게 조사되었고 자녀 학령기준도 목표 비중에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권역별 목표 표본 비중 대비 도심권과 서북권 응답자 비중이 각 1.1% 및 1.4% 낮게 조사되었으나 각 권역의 응답자 수가 100명 이상을 초과하여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3-2] 목표 표본 할당 비중과 실제 응답자 비중**

(단위: 명, %)

응답자 특성		남자	여자	전체	응답자 비중	
전체		581	602	1,183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25	76	101	8.5	
	서남권	170	139	309	26.1	
	서북권	73	100	173	14.6	
	동북권	143	162	305	25.8	
	동남권	170	125	295	24.9	
자녀 학령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80	99	179	15.1	60.7
	2학년	102	173	275	23.2	
	3학년	109	155	264	22.3	
	4학년	98	79	177	15.0	39.3
	5학년	81	50	131	11.1	
	6학년	111	46	157	13.3	
비중(%)		49.1	50.9			

#### □ 조사 내용

조사의 주된 내용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전후의 코로나19 시기 아동 돌봄 현황과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정책 수요 등이며, 2021년 1학기과 2022년 1학기 아동돌봄 현황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표 3-3]과 같다. 일반사항은 거주 지역, 자녀 학령, 응답자와 자녀의 관계, 학부 모 맞벌이 여부, 응답자 성별, 학력, 근로 여부, 근무 형태, 가구 소득수준이다. 돌봄

실태는 코로나19 시기 등교 현황과 공백 여부, 공백 시 주된 돌봄 제공자, 방과후 일과, 사교육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고,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어려움 지속기간과 추가 발생 비용, 2021년 대비 2022년 돌봄 어려움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돌봄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각각의 이용 여부, 주된 돌봄 제공 방식, 만족도와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등을 조사하였다. 정책수요는 현재 단계에서 자녀의 돌봄·교육 측면, 보건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과 공적 방과후 서비스 기관 이용의향 및 개선점 그리고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녀 돌봄 지원·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과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 질문은 2019년에 진행된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연구(이혜숙 외, 2019)'의 설문내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부 항목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3-3] 실태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 지역(자치구), 자녀 학년, 자녀와 관계, 맞벌이 여부</li> <li>- 성별, 학력, 근로여부, 근무형태, 고용형태, 소득수준</li> </ul>
돌봄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실태: 등교 현황, 주된 돌봄제공자, 방과후 일과</li> <li>- 돌봄공백: 공백 여부, 공백 이유</li> <li>- 돌봄의 어려움 경험과 대처: 여부, 지속기간, 대처방법, 비용</li> <li>- 2021년 대비 2022년 자녀 돌봄 어려움의 변화</li> <li>- 사교육: 이용 현황, 주된 수업방식</li> </ul>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돌봄방식, 서비스 유형, 만족도</li> <li>-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백 시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종류</li> <li>- 2021년 대비 2022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변화</li> <li>- *학기 중 방과후 생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이유 및 여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미이용 시 돌봄 계획</li> <li>- 향후 코로나19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의향, 이용을 원하는 기관 유형, 원하는 이유</li> <li>-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개선점</li> </ul>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등교 전환에 대한 자녀 돌봄·교육에 대한 우려점</li> <li>-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단계에서 느끼는 보건상의 어려움</li> <li>-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미이용 시 자녀 돌봄 계획 및 미이용 이유</li> <li>-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개선점</li> <li>-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의 자녀 돌봄 지원 필요 사항</li> </ul>

\*2019년 연구와 비교 가능 문항

## (2) 응답자의 일반 사항

### □ 응답자 특성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26.1%로 비중이 가장 높고 동북권(25.8%), 동남권(24.9%), 서북권(14.6%), 도심권(8.5%) 순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가 69.7%, 홀벌이가 30.3%였으며, 가구소득별로는 700만 원 이상이 31.1%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0~500만 원 미만(18.0%)이다([표 3-4] 참조).<sup>18)</sup>

[표 3-4]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응답자 특성		전체	
		사례 수	비율
전체		1,183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101	8.5
	동북권	305	25.8
	서북권	173	14.6
	서남권	309	26.1
	동남권	295	24.9
자녀 학령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179	15.1
	2학년	275	23.2
	3학년	264	22.3
	4학년	177	15.0
	5학년	131	11.1
	6학년	157	13.3
응답자 성별 <sup>1)</sup>	남자	581	49.1
	여자	602	5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69.7
	홀벌이	359	30.3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8	0.7
	100~200만 원 미만	24	2.0
	200~300만 원 미만	55	4.6
	300~400만 원 미만	111	9.4
	400~500만 원 미만	213	18.0
	500~600만 원 미만	212	17.9
	600~700만 원 미만	192	16.2
	700만 원 이상	368	31.1

주1. 응답자 중 어머니 비율은 50.5%, 아버지(48.8%), 외조부(0.2%), 기타(고모, 삼촌, 숙모, 이모, 큰아버지) 0.6%임

<sup>18)</sup> 타 조사에 비해 응답자 성별 중 남성 비중이 높은 점, 가구소득이 높은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 설문조사의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 자녀의 돌봄서비스 이용 특성

전체 응답자 중 2021년과 2022년 모두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25.5%이며,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63.4%이다. 2021년에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자 중 86.7%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가 24.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2.3%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초등돌봄교실이 90.7%로 이용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이용률이 23.2%로 조사되었다([표 3-5] 참조).

[표 3-5]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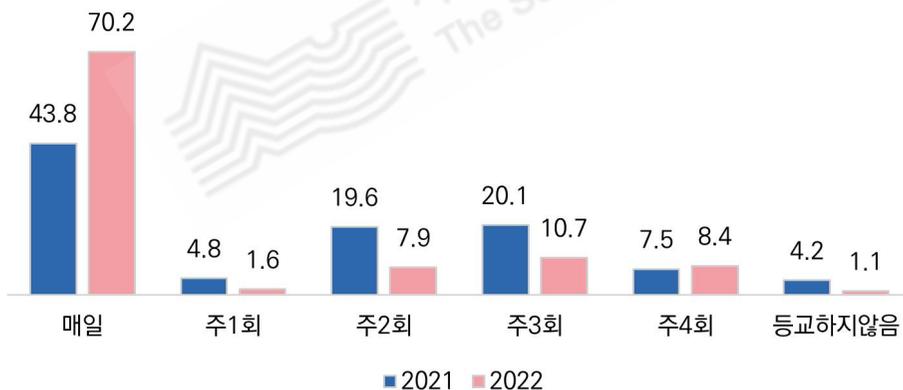
구분		전체	
		사례 수	비율
전체		1,183	100.0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2021년만 이용	89	8.9
	2022년만 이용	22	2.2
	2개년 모두 이용	256	25.5
	미이용	637	63.4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2021년 기관 유형별 이용경험(중복응답)	초등돌봄교실	299	86.7
	지역아동센터	85	24.6
	우리동네키움센터	63	18.3
	아이돌봄서비스	73	21.2
	공동육아나눔터	42	12.2
	학교돌봄터	74	2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7	22.3
	초등돌봄교실	333	90.7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2022년 기관 유형별 이용경험(중복응답)	지역아동센터	85	23.2
	우리동네키움센터	69	18.8
	아이돌봄서비스	75	20.4
	공동육아나눔터	42	11.4
	학교돌봄터	85	23.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83	22.6

## 2\_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돌봄실태

#### □ 평균 등교 일수

‘2021년 1학기 1주일에 평균적으로 며칠 학교에 등교(대면수업)했습니까?’라는 질문에 2021년 평균 등교일수는 매일 등교가 43.8%로 가장 높지만, 저학년의 3.9%, 고학년의 4.5%가 등교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1), [표 3-6] 참조). 고학년에 서 등교일수가 적은 것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저학년은 2020년 2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고학년은 밀집도 기준이 적용되어 학년별, 요일별로 등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에는 4월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해제되고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매일 등교하는 비중이 70.2%([그림 3-1], [표 3-6] 참조)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2년 1학기에도 미등교 비율이 1.1%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2021년 서남권이 평균 3.7일, 2022년 도심권이 4.6일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3-1] 2021년과 2022년 1학기 등교일(단위: %)

[표 3-6] 1주일 평균 등교 일수(대면수업)

(단위: %, 일)

연도	1주일 평균 등교 일수							평균	
	미등교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매일	계		
2021년 1학기	4.2	4.8	19.6	20.1	7.5	43.8	100.0	3.5	
거주 구역	도심권	3.3	1.1	18.7	<b>46.2</b>	11.0	19.8	100.0	3.2
	동북권	3.2	<b>8.8</b>	20.8	18.4	3.6	45.2	100.0	3.5
	서북권	4.9	4.2	<b>25.0</b>	18.8	6.9	40.3	100.0	3.4
	서남권	<b>4.9</b>	4.5	15.4	18.0	4.5	<b>52.8</b>	100.0	<b>3.7</b>
	동남권	4.4	2.8	20.2	15.5	<b>13.5</b>	43.7	100.0	3.6
학년별	2학년	3.3	4.0	13.5	15.3	9.1	54.9	100.0	3.9
	3학년	4.5	3.8	17.8	22.7	9.5	41.7	100.0	3.5
	4학년	1.7	3.4	20.3	24.9	6.2	43.5	100.0	3.6
	5학년	9.2	3.8	27.5	21.4	5.3	32.8	100.0	3.1
	6학년	3.8	10.2	26.1	17.8	4.5	37.6	100.0	3.2
학년 구분	저학년	3.9	3.9	15.6	18.9	9.3	48.4	100.0	3.7
	고학년	4.5	5.8	24.3	21.5	5.4	38.5	100.0	3.3
2022년 1학기	1.1	1.6	7.9	10.7	8.4	70.2	100.0	4.3	
거주 구역	도심권	1.0	0.0	5.9	5.9	1.0	<b>86.1</b>	100.0	<b>4.6</b>
	동북권	0.7	1.6	<b>11.8</b>	10.8	5.6	69.5	100.0	4.3
	서북권	0.6	0.6	5.8	8.7	9.8	74.6	100.0	4.5
	서남권	<b>2.3</b>	<b>2.6</b>	6.1	9.1	8.4	71.5	100.0	4.3
	동남권	0.7	1.7	7.8	<b>15.3</b>	<b>12.9</b>	61.7	100.0	4.2
학년별	1학년	1.7	1.7	4.5	7.3	8.9	76.0	100.0	4.5
	2학년	0.7	2.2	5.8	7.3	7.6	76.4	100.0	4.5
	3학년	0.8	2.3	6.1	10.2	8.3	72.3	100.0	4.4
	4학년	1.1	0.6	11.9	11.3	9.0	66.1	100.0	4.2
	5학년	-	-	15.3	16.8	9.9	58.0	100.0	4.1
6학년	2.5	1.9	8.3	15.9	7.0	64.3	100.0	4.2	
학년 구분	저학년	1.0	2.1	5.6	8.4	8.2	74.8	100.0	4.5
	고학년	1.3	0.9	11.6	14.4	8.6	63.2	100.0	4.2

## □ 등교하지 않은 평일 오전·낮시간 주된 돌봄제공자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을 때 평일 오전 및 낮시간 주된 돌봄제공자로 2021년 1학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24.3%),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17.4%),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13.7%)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2 참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2022년 1학기 시점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32.7%로 소폭 감소하였고, 자녀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지내는 비율도 13.1%로 감소하였다([표 3-8] 참조). 반면 조부모·친인척 돌봄과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민

간 아이돌보미 고용 비율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별, 맞벌이 여부에 따른 돌봄 제공자를 살펴보면, 자녀가 혼자(자녀끼리) 있었던 비율은 고학년 특히 4~5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자녀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혼자 있었다는 비율이 2021년에 서남권이 23.0%로 가장 높고 2022년에는 도심권이 21.4%로 가장 높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2개년도 모두 서북권의 이용률이 높고,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였다는 비율은 2개년도 모두 동남권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sup>19)</sup>,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자녀 혼자(또는 자녀끼리) 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 가구소득이 100~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40%, 2022년 1학기에 가구소득이 100~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57.1%가 학교를 가지 않는 동안 자녀 혼자(또는 자녀끼리)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7], [표 3-8] 참조).



[그림 3-2] 등교하지 않는 평일 오전/낮 시간 주된 돌봄 제공자(단위: %)

<sup>19)</sup> 2021년 1학기에 등교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평일 주된 돌봄제공자 문항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는 564명으로,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가구, 100~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0가구가 응답함. 2022년 1학기 동일 문항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는 352명으로, 100~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7가구가 응답함

[표 3-7] 2021년 1학기 평일 오전/낮시간 돌봄제공자

(단위: %)

구분	부모가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있었음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공적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민간 아이 돌보미 고용	기타	계	
2021년 1학기	36.0	24.3	17.4	13.7	5.1	2.7	0.9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38.4	17.8	16.4	13.7	9.6	2.7	1.4	100.0
	동북권	38.7	24.1	19.7	10.9	5.1	0.7	0.7	100.0
	서북권	30.2	27.9	14.0	22.1	3.5	1.2	1.2	100.0
	서남권	28.6	27.8	23.0	11.9	5.6	1.6	1.6	100.0
	동남권	42.3	22.5	12.7	12.7	3.5	6.3	0.0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2학년	37.9	27.4	7.3	15.3	8.9	1.6	1.6	100.0
	3학년	32.5	27.3	9.1	22.7	5.8	1.9	0.6	100.0
	4학년	43.0	20.0	17.0	11.0	4.0	4.0	1.0	100.0
	5학년	34.1	22.7	27.3	8.0	3.4	3.4	1.1	100.0
	6학년	33.7	21.4	34.7	5.1	2.0	3.1	-	100.0
학년 구분	저학년	34.9	27.3	8.3	19.4	7.2	1.8	1.1	100.0
	고학년	37.1	21.3	26.2	8.0	3.1	3.5	0.7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3	32.1	21.2	18.5	6.7	3.2	1.0	100.0
	홀벌이	83.6	4.4	7.5	1.3	1.3	1.3	0.6	100.0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	-	100.0	-	-	-	-	100.0
	100~200만 원 미만	30.0	20.0	40.0	10.0	-	-	-	100.0
	200~300만 원 미만	56.0	28.0	8.0	8.0	-	-	-	100.0
	300~400만 원 미만	37.0	24.1	20.4	11.1	5.6	1.9	-	100.0
	400~500만 원 미만	48.8	16.3	12.5	12.5	7.5	1.3	1.3	100.0
	500~600만 원 미만	36.1	21.8	15.1	13.4	8.4	4.2	0.8	100.0
	600~700만 원 미만	21.9	23.8	22.9	22.9	5.7	-	2.9	100.0
	700만 원 이상	35.9	30.0	16.5	10.6	2.4	4.7	-	100.0

[표 3-8] 2022년 1학기 평일 오전/낮시간 돌봄제공자

(단위: %)

구분	부모가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있었음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공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민간 아이 돌보미 고용	기타	계
2022년 1학기	32.7	27.6	13.1	17.6	5.1	3.7	0.3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35.7	28.6	21.4	14.3	-	-	100.0
	동북권	35.5	25.8	15.1	15.1	6.5	2.2	100.0
	서북권	25.0	22.7	11.4	34.1	6.8	-	100.0
	서남권	31.8	27.3	19.3	12.5	3.4	4.5	100.0
	동남권	33.6	31.0	6.2	17.7	5.3	6.2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46.5	27.9	2.3	14.0	-	9.3	100.0
	2학년	32.3	32.3	6.2	15.4	12.3	1.5	100.0
	3학년	24.7	31.5	8.2	31.5	2.7	1.4	100.0
	4학년	41.7	23.3	10.0	13.3	5.0	5.0	100.0
	5학년	23.6	29.1	18.2	16.4	9.1	3.6	100.0
	6학년	32.1	19.6	33.9	10.7	-	3.6	100.0
학년 구분	저학년	32.6	30.9	6.1	21.5	5.5	3.3	100.0
	고학년	32.7	24.0	20.5	13.5	4.7	4.1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6	36.2	16.1	22.0	6.7	3.9	100.0
	홀벌이	79.6	5.1	5.1	6.1	1.0	3.1	100.0
가구 소득	100~200만 원 미만	28.6	14.3	57.1	-	-	-	100.0
	200~300만 원 미만	44.4	33.3	-	11.1	5.6	5.6	100.0
	300~400만 원 미만	35.3	33.3	5.9	21.6	3.9	-	100.0
	400~500만 원 미만	37.5	21.4	14.3	19.6	7.1	-	100.0
	500~600만 원 미만	32.8	29.7	12.5	10.9	6.3	7.8	100.0
	600~700만 원 미만	22.0	20.0	14.0	30.0	10.0	2.0	100.0
	700만 원 이상	32.1	30.2	15.1	15.1	1.9	5.7	100.0

□ 코로나19 동안 자녀 돌봄의 어려움 경험

코로나19 동안 자녀를 돌보는데 겪은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2021년에는 학부모의 60.9%, 2022년에는 학부모의 40.8%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 1학기에는 도심권이 다른 권역보다,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고, 맞벌이(68.5%)가 홀벌이(43.2%)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표 3-9) 참조). 2022년 1학기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표 3-1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돌봄 어려움 지속기간 및 추가 돌봄 비용 여부

(단위: %)

구분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 지속 기간	1주일 이내	35.0	39.5
	1주일~2주일	36.0	35.6
	2주일~한 달	11.8	13.7
	한 달 이상	17.2	10.8
	기타	-	0.4
계		100.0	100.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가적인 자녀돌봄 비용 발생 여부	추가 비용 발생	43.2	46.4
	추가 비용 미발생	56.8	53.6
계		100.0	100.0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관련 추가 발생 비용

코로나19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2021년에 월 약 39만 원에서 2022년에 약 4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표 3-11) 참조). 학년별로는 4학년이 2개년도 모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동북권, 맞벌이 가정의 추가 돌봄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추가 돌봄비용의 증가 폭이 큰 것은 2학년과 도심권, 홀벌이 가정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리두기 단계 및 밀집도 기준 완화 등으로 기관 이용 제한이 적어지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사교육 기관 등 시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돌봄을 위한 비용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1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돌봄 추가 돌봄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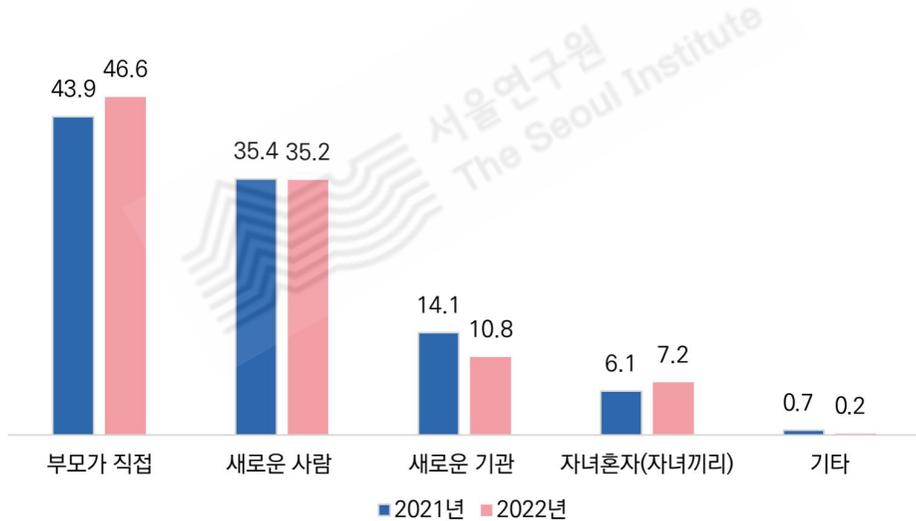
(단위: 만 원)

구분	학년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학년	1학년	-	47.7
	2학년	39.8	48.7
	3학년	38.4	40.5
	4학년	<b>42.0</b>	<b>49.9</b>
	5학년	38.9	43.9
	6학년	34.7	34.8
거주 권역	도심권	26.8	38.1
	동북권	<b>41.5</b>	<b>49.2</b>
	서북권	37.6	46.5
	서남권	39.6	44.3
	동남권	40.6	4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b>40.5</b>	<b>46.2</b>
	홀벌이	31.6	38.8
평균 비용	합계	39.0	44.8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어려움 발생 시 대처 방법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부모 직접 돌봄'이 43.9%로 가장 높고, '새로운 사람을 구함' 35.4%,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들끼리 있었음' 14.1%, '새로운 기관을 구함' 6.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부모 직접 돌봄'은 권역별로는 도심권(50.8%)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홀별이 가정(72.5%)이 맞별이 가정(36.0%)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새로운 기관 구함'은 맞별이(6.9%)가 홀별이(3.1%)보다 상대적으로 높다(표 3-12) 참조).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학부모의 46.6%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모가 직접 돌보았다고 응답했고, '새로운 사람을 구함' 35.2%,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들끼리 있었음' 10.8%, '새로운 기관을 구함' 7.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직접 돌봄'은 권역별로 도심권(62.1%)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홀별이 가정(73.1%) 맞별이 가정(38.9%)보다 높은 반면, '새로운 사람 구함'은 맞별이 가정(40.8%)이 홀별이 가정(15.7%)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12) 참조).



[그림 3-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 어려움 발생 시 대처방법(%)

[표 3-1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돌봄 어려움 경험 시 대처방법

(단위: %)

응답자 특성	부모가 직접 돌봄	새로운 사람을 구함	자녀 혼자 (미성년 자녀끼리) 있었음	새로운 기관을 구함	기타	계
2021년 1학기	43.9	35.4	14.1	6.1	0.7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50.8	33.9	11.9	1.7	100.0
	동북권	34.0	39.6	18.8	6.3	100.0
	서북권	42.4	32.9	17.6	7.1	100.0
	서남권	47.9	32.3	13.8	5.4	100.0
	동남권	46.8	36.5	9.0	7.7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2학년	48.3	36.0	9.9	5.2	100.0
	3학년	43.1	42.0	10.3	4.6	100.0
	4학년	43.3	36.5	12.5	5.8	100.0
	5학년	32.5	33.8	24.7	9.1	100.0
	6학년	47.6	20.2	22.6	8.3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0	40.8	15.6	6.9
	홀벌이	72.5	15.3	8.4	3.1	100.0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66.7	33.3	-	-	100.0
	100~200만 원 미만	60.0	20.0	20.0	-	100.0
	200~300만 원 미만	45.2	32.3	9.7	12.9	100.0
	300~400만 원 미만	35.4	31.3	20.8	12.5	100.0
	400~500만 원 미만	52.9	28.8	13.5	4.8	100.0
	500~600만 원 미만	50.0	31.4	16.9	0.8	100.0
	600~700만 원 미만	37.0	34.3	15.7	11.1	100.0
	700만 원 이상	39.7	44.4	10.6	4.8	100.0
2022년 1학기	46.6	35.2	10.8	7.2	0.2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62.1	24.1	6.9	3.4	100.0
	동북권	48.0	36.2	9.4	6.3	100.0
	서북권	44.1	23.5	20.6	11.8	100.0
	서남권	50.0	32.3	11.5	6.2	100.0
	동남권	39.5	45.7	7.0	7.8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44.9	46.7	0.9	7.5	100.0
	2학년	47.8	35.4	8.0	8.8	100.0
	3학년	53.9	30.3	10.1	5.6	100.0
	4학년	42.4	31.8	16.7	7.6	100.0
	5학년	44.0	32.0	20.0	4.0	100.0
	6학년	43.1	27.6	20.7	8.6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9	40.8	12.3	8.0	100.0
	홀벌이	73.1	15.7	5.6	4.6	100.0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00.0	-	-	-	100.0
	100~200만 원 미만	41.7	16.7	33.3	8.3	100.0
	200~300만 원 미만	38.5	46.2	3.8	11.5	100.0
	300~400만 원 미만	51.0	32.7	6.1	10.2	100.0
	400~500만 원 미만	45.6	41.8	8.9	3.8	100.0
	500~600만 원 미만	50.0	30.2	12.8	7.0	100.0
	600~700만 원 미만	47.1	30.9	11.8	8.8	100.0
	700만 원 이상	44.4	37.5	11.3	6.9	100.0

주. 새로운 사람은 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아이돌보미 등, 새로운 기관은 공적 방과후 돌봄기관, 민간 학원, 방문 과외 등을 의미함

## □ 코로나19 동안 사교육 이용 여부

사교육 이용 여부는 2021년 1학기 86.3%, 2022년 1학기 88.9%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3-13] 참조).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2개년도 모두 사교육 이용 경험 비율이 높고 2021년 1학기에는 고학년에서 이용 비율이 높고, 2021년 1학기과 비교했을 때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사교육 이용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100만 원 미만의 가정의 사교육 이용 경험 비율이 낮고,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사교육 이용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사교육 이용은 2021~2022년 모두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가정에서 사교육 이용 경험이 더 높다.

[표 3-13] 사교육(학원/방문과외/학습지 등)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전체		86.3	88.9
거주 권역	도심권	68.1	89.1
	동북권	90.0	88.5
	서북권	78.5	84.4
	서남권	87.6	89.0
	동남권	92.1	91.9
자녀 학령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	89.4
	2학년	80.4	86.9
	3학년	86.4	91.3
	4학년	89.8	85.3
	5학년	89.3	90.8
	6학년	89.8	9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87.7	90.8
	홀벌이	82.8	84.7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7.1	37.5
	100~200만 원 미만	83.3	75.0
	200~300만 원 미만	82.6	78.2
	300~400만 원 미만	87.0	86.5
	400~500만 원 미만	83.7	88.3
	500~600만 원 미만	84.0	89.6
	600~700만 원 미만	85.8	92.2
	700만 원 이상	90.3	91.6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2개년도 모두 이용	89.1	95.3
	미이용	84.8	87.6

### □ 자녀돌봄 제도 이용 경험

자녀돌봄 제도 이용 경험은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아버지의 46.6%, 어머니의 39.8%로 가장 높았다(표 3-14 참조).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는 재택근무로 아버지의 25.1%, 어머니의 23.4%가 재택근무를 이용했다. 다른 자녀돌봄 제도는 어머니의 이용경험이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재택근무에서는 아버지의 이용률이 1.7%p 높다. 재택근무 다음으로는 유급휴가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4.7%, 15.9%이다. 어머니의 경우 13.7%가 육아휴직, 13.7%가 무급휴가, 12.8%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제도 이용 경험보다 1.5~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돌봄 제도 이용률이 높고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자녀돌봄 제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표 3-14] 자녀돌봄 제도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		무급휴가		육아휴직		육아시간지원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전체	8.1	12.8	14.7	15.9	8.0	13.7	4.2	13.7	1.7	4.2	
거주 권역	도심권	2.4	11.9	4.8	11.9	6.0	17.9	6.0	17.9	0.0	3.6
	동북권	9.7	11.6	12.0	13.5	6.9	13.1	4.2	12.4	0.4	3.5
	서북권	6.3	11.9	14.4	14.4	7.5	18.1	0.6	13.1	3.1	4.4
	서남권	7.7	12.8	19.8	17.2	8.4	11.7	4.4	14.3	1.5	3.3
	동남권	10.0	14.8	15.6	18.9	9.6	12.2	5.6	13.3	3.0	5.9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9.4	19.4	11.3	14.4	8.1	14.4	5.0	21.3	2.5	5.6
	2학년	7.5	12.8	17.6	17.2	8.4	19.8	4.0	11.9	0.9	4.0
	3학년	8.2	9.5	16.5	18.2	7.8	13.4	4.3	13.9	1.7	3.9
	4학년	7.4	11.0	14.7	17.2	6.7	8.6	4.9	12.9	1.8	4.3
	5학년	11.6	14.0	15.7	16.5	9.1	12.4	3.3	12.4	1.7	4.1
	6학년	5.6	11.8	10.4	9.7	8.3	10.4	3.5	9.7	2.1	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9.1	15.1	16.4	19.5	9.5	16.5	4.9	16.0	1.7	4.7
	홀벌이	4.7	4.7	9.0	3.4	3.0	3.8	1.7	5.6	1.7	2.6
가구 소득	100 만 원 미만	-	-	-	-	-	50.0	-	-	-	-
	100~200 만 원 미만	8.7	13.0	8.7	8.7	-	4.3	4.3	-	-	4.3
	200~300 만 원 미만	9.3	16.3	4.7	7.0	11.6	18.6	7.0	9.3	-	7.0
	300~400 만 원 미만	5.4	5.4	7.5	12.9	14.0	17.2	3.2	6.5	3.2	7.5
	400~500 만 원 미만	6.7	10.7	12.9	7.9	9.0	12.9	4.5	11.2	-	3.4
	500~600 만 원 미만	6.5	10.3	14.6	13.5	7.6	13.0	2.2	10.8	2.7	2.7
	600~700 만 원 미만	10.2	14.2	15.3	20.5	7.4	15.3	3.4	11.9	2.3	2.3
	700만 원 이상	9.3	16.3	19.2	21.5	6.7	12.2	5.5	20.9	1.7	5.2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2021년만 이용	11.3	15.0	16.3	12.5	8.8	11.3	1.3	12.5	2.5	10.0
	2022년만 이용	-	5.6	22.2	22.2	22.2	38.9	-	22.2	-	-
	모두 이용	13.7	21.7	22.9	25.3	14.1	25.3	8.8	14.1	3.6	8.4
	미이용	5.0	6.7	11.5	12.2	4.6	7.6	2.4	11.1	0.6	1.1

[표 3-14(계속)] 자녀돌봄 제도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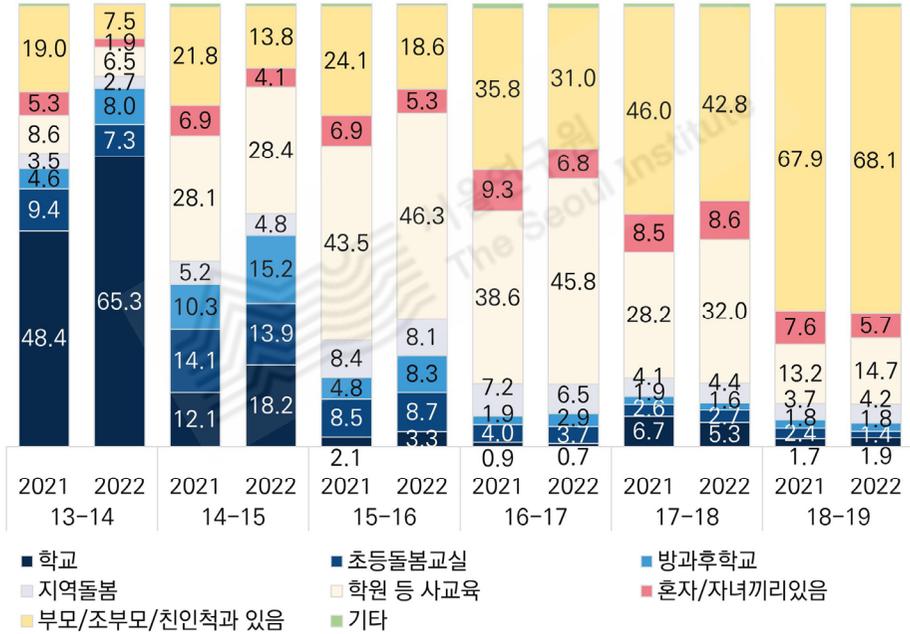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근로시간단축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없음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전체		8.0	10.7	25.1	23.4	11.3	11.4	46.6	39.8
거주 권역	도심권	10.7	16.7	26.2	22.6	11.9	10.7	48.8	35.7
	동북권	5.4	8.1	20.1	20.5	10.0	12.0	54.4	43.2
	서북권	6.3	9.4	27.5	28.8	9.4	5.6	50.0	37.5
	서남권	9.2	11.4	24.5	22.3	9.5	9.5	42.9	41.8
	동남권	9.6	11.5	28.9	24.4	15.2	16.3	40.0	37.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6.9	13.1	25.6	25.0	8.8	15.0	47.5	35.0
	2학년	6.2	8.4	24.7	27.3	11.0	12.3	45.8	31.3
	3학년	10.0	15.2	26.0	23.4	9.5	8.2	48.5	40.7
	4학년	5.5	8.6	25.8	19.6	13.5	8.6	46.6	44.8
	5학년	9.1	7.4	27.3	28.9	14.0	17.4	41.3	37.2
	6학년	11.1	9.7	21.5	15.3	12.5	9.0	47.9	5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8.5	12.7	25.5	27.7	11.6	13.8	43.5	29.2
	홀벌이	6.4	3.8	23.9	8.5	10.3	3.0	57.3	76.5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	-	-	-	-	-	100.0	50.0
	100~200만 원 미만	13.0	13.0	17.4	26.1	4.3	4.3	52.2	39.1
	200~300만 원 미만	4.7	11.6	11.6	14.0	7.0	2.3	58.1	44.2
	300~400만 원 미만	12.9	10.8	17.2	16.1	5.4	5.4	54.8	50.5
	400~500만 원 미만	6.2	5.6	23.0	21.3	12.4	13.5	51.7	46.6
	500~600만 원 미만	9.2	14.1	17.3	18.4	11.9	8.6	53.5	42.7
	600~700만 원 미만	8.5	10.8	30.1	29.5	12.5	13.6	37.5	26.7
	700만 원 이상	7.0	11.3	32.6	27.3	12.5	14.0	40.1	37.8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2021년만 이용	6.3	10.0	25.0	21.3	13.8	12.5	38.8	33.8
	2022년만 이용	11.1	5.6	22.2	33.3	27.8	16.7	50.0	27.8
	모두 이용	13.3	14.5	24.9	26.1	13.7	16.5	34.1	22.5
	미이용	6.1	8.5	25.2	21.7	10.0	7.6	53.1	50.5

## 2) 방과후 생활

### □ 코로나19 기간 방과후 생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학기 중 방과후 생활을 조사한 결과, 2021년 1학기에 비해 2022년 1학기는 오후 2시까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방과후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가족(부모·조부모·친인척)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폭 줄어들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지역돌봄은 큰 차이는 없지만 13~14시 사이에 4.6%에서 2.8%로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3-4) 참조). 자녀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있는 시간도 2022년 1학기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주로 하교 시간 이후인 2시 이후부터 학원 등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그림 3-4] 2021년과 2022년 1학기 1~3학년 학기 중 방과후 생활

전체 학년의 학기 중 방과후 생활에서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방과후학교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돌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학원 등 사교육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자녀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지내는 비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2021년과 2022년 1학기 전체 학년 학기 중 방과후 생활

(단위: %)

구분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학교	48.4	<b>65.3</b>	12.1	<b>18.2</b>	2.1	<b>3.3</b>	0.9	0.7	6.7	5.3	1.7	<b>1.9</b>
초등돌봄교실	9.4	7.3	14.1	13.9	8.5	<b>8.7</b>	4.0	3.7	2.6	<b>2.7</b>	2.4	1.4
방과후학교	4.6	<b>8.0</b>	10.3	<b>15.2</b>	4.8	<b>8.3</b>	1.9	<b>2.9</b>	1.9	1.6	1.8	1.8
지역돌봄	3.5	2.7	5.2	4.8	8.4	8.1	7.2	6.5	4.1	<b>4.4</b>	3.7	<b>4.2</b>
학원 등 사교육	8.6	6.5	28.1	<b>28.4</b>	43.5	<b>46.3</b>	38.6	<b>45.8</b>	28.2	<b>32.0</b>	13.2	<b>14.7</b>
혼자/자녀끼리 있음	5.3	1.9	6.9	4.1	6.9	5.3	9.3	6.8	8.5	8.6	7.6	5.7
부모/조부모/ 친인척과 있음	19.0	7.5	21.8	13.8	24.1	18.6	35.8	31.0	46.0	42.8	67.9	<b>68.1</b>
기타	0.6	0.3	0.8	0.6	0.7	0.4	1.1	1.0	0.8	0.8	0.7	0.8

### 3) 돌봄공백

#### □ 코로나19 기간 돌봄공백 발생 비율

이 연구에서 돌봄공백은 ‘코로나19 시기 등교하지 못한 아동이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평일 오전·낮시간 동안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시간을 보낸 경우’를 의미한다. 2021년 1학기에는 전체 응답자의 17.4%, 2022년 1학기에는 13.1%가 등교하지 않는 평일에 자녀 혼자(자녀끼리)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6) 참조). 2021년을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서남권 응답자의 23.0%, 동북권의 19.7%가 자녀 혼자(자녀끼리)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하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다. 맞벌이 가정은 홀벌이 가정보다 자녀가 혼자(자녀끼리)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배 이상이며,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자녀의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sup>20)</sup> 2022년 1학기는 전반적으로 돌봄공백이 감소하였지만, 도심권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이전과의 비교를 위해 2019년 연구인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이혜숙 외, 2019)’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단, 2019년 연구에서는 ‘방과 전·후 누가 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

<sup>20)</sup> 단, 자녀 혼자(자녀끼리) 있었다는 응답자수는 2021년 1학기 98명, 2022년 1학기 46명으로 소득구간별 응답자 10명 내외인 경우가 있어 해석의 주의가 필요함

되어 있으며, 여러 응답지 중 ‘자녀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있음’을 응답한 응답자 기준으로 돌봄공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연구는 자치구별 1~3학년 초등학교 현황을 기준으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본 조사와 표본설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2019년에 자녀가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3.6%로 2022년 1학과 유사하다(표 3-16 참조). 도심권에서 특히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돌봄공백 비율도 높으며 맞벌이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2019년 조사결과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5명 중 1명 이상이 자녀 혼자(형제·자매와)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돌봄공백 비율**

(단위: %)

구분		2019년*	2021년 1학기(N=98)	2022년 1학기(N=46)
전체		13.6	17.4	13.1
거주 권역	도심권	41.6	16.4	21.4
	동북권	9.7	19.7	15.1
	서북권	23.1	14.0	11.4
	서남권	11.0	23.0	19.3
	동남권	12.0	12.7	6.2
자녀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9.0	-	2.3
	2학년	12.2	7.3	6.2
	3학년	23.9	9.1	8.2
	4학년	-	17.0	10.0
	5학년	-	27.3	18.2
	6학년	-	34.7	3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2	21.2	16.1
	홀벌이	4.0	7.5	5.1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	100.0	-
	100~200만 원 미만	10.3	40.0	57.1
	200~300만 원 미만	3.6	8.0	-
	300~400만 원 미만	7.7	20.4	5.9
	400~500만 원 미만	13.0	12.5	14.3
	500~600만 원 미만	23.2	15.1	12.5
	600~700만 원 미만	23.5	22.9	14.0
	700만 원 이상	23.3	16.5	15.1

\*이혜숙·신인철·유삼현·이영주, 2019,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조사결과

### □ 자녀 혼자 또는 자녀끼리 보낸 시간

자녀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보낸 시간은 2021년 1학기는 주당 23.7시간, 2022년 1학기는 주당 20.3시간 자녀 혼자(자녀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7] 참조). 2021년에 비해 2022년 1학기에 2학년, 4~6학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줄었으나, 3학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소폭 증가하였다. 권역별로 도심권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10%p가량 증가하였다.

[표 3-17] 자녀 혼자 또는 자녀끼리 보낸 주당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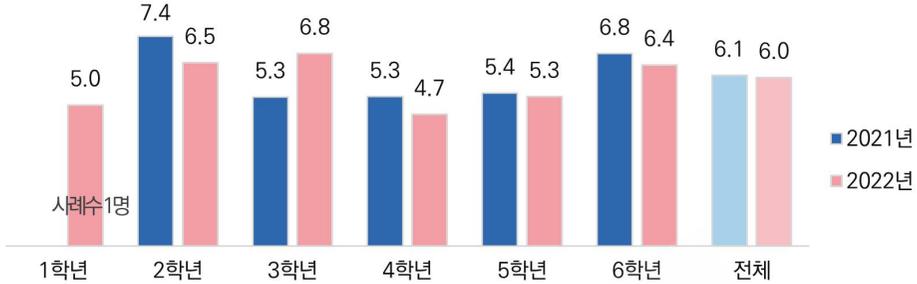
(단위: 시간)

구분	학년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학년	1학년	-	25.0
	2학년	29.4	25.5
	3학년	17.1	19.0
	4학년	18.2	13.8
	5학년	22.8	22.2
	6학년	28.3	20.4
거주 권역	도심권	25.6	35.3
	동북권	26.9	21.8
	서북권	24.2	17.2
	서남권	22.5	17.5
	동남권	19.3	19.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7	20.4
	홀벌이	24.0	19.0
주당 평균 시간	합계	23.7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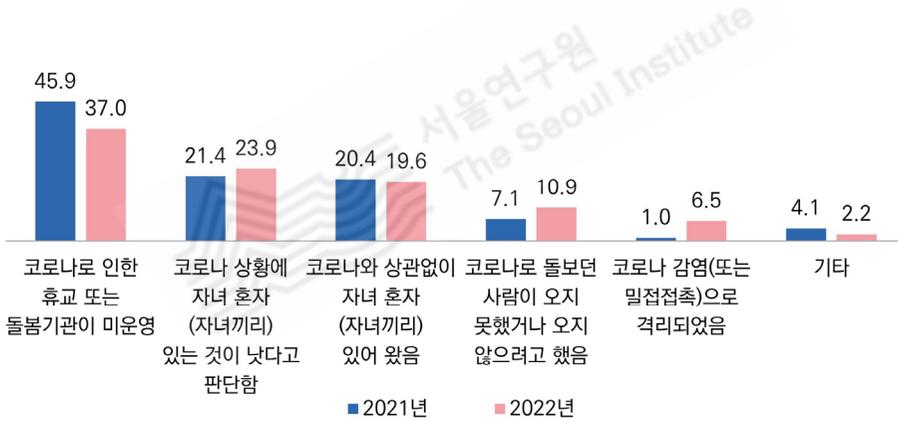
### □ 자녀 혼자 또는 자녀끼리 시간을 보낸 이유

미성년 자녀끼리 또는 자녀 혼자 시간을 보낸 이유는 2021년과 2022년 1학기 모두 ‘코로나로 인해 휴교 또는 돌봄기관이 운영되지 않아서’가 각각 45.9%, 37.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가 각각 21.4%, 23.9%로 나타났다([그림 3-5] 참조). 반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있어 왔다’라는 응답이 각각 20.4%, 19.6%로 초등학교 5명 중 1명은 자녀 혼자(자녀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돌보던 사람이 오지 못했거나 오지 않으려 했다’라는 응답은 오히려 2022년에 10.9%로 소폭 증가하였고, 코로나 감염(또는 밀접접촉)으

로 인한 격리도 2022년 1학기에 증가하였다(그림 3-6) 참조). ‘코로나로 인해 휴교 또는 돌봄기관이 운영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2021년에는 서북권이 58.3%, 2022년에는 동북권이 47.1%로 타 권역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18) 참조).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돌봄기관 미운영이나 코로나로 인해 돌보던 사람이 오지 못해서 돌봄공백이 발생했다는 응답률이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자녀 혼자(자녀끼리) 보내는 것이 낫다는 가족의 판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지낸 일주일 평균 시간



[그림 3-6]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지낸 이유(%)

[표 3-18] 자녀 혼자(자녀끼리) 시간을 보낸 이유

(단위: %)

구분	코로나로 인해 휴교 또는 돌봄기관이 운영되지 않음	코로나 상황에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있는 것이 낮다고 판단함		코로나와 상관없이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있어 왔음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돌보던 사람이 오지 못했거나 오지 않으려고 했음		코로나 감염 (또는 밀접접촉)으로 격리되었음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전체	45.9	37.0	21.4	23.9	20.4	19.6	7.1	10.9	1.0	6.5	
거주 권역	도심권	33.3	33.3	8.3	-	50.0	-	-	33.3	-	-
	동북권	40.7	35.7	37.0	28.6	7.4	21.4	7.4	7.1	3.7	7.1
	서북권	58.3	20.0	8.3	40.0	25.0	20.0	8.3	-	-	20.0
	서남권	51.7	47.1	17.2	23.5	24.1	17.6	3.4	5.9	-	5.9
	동남권	44.4	28.6	22.2	14.3	11.1	28.6	16.7	28.6	-	-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	100.0	-	-	-	-	-	-	-	-
	2학년	55.6	75.0	11.1	-	11.1	-	22.2	25.0	-	-
	3학년	50.0	33.3	7.1	16.7	28.6	33.3	7.1	-	-	16.7
	4학년	58.8	50.0	17.6	16.7	17.6	-	-	-	5.9	33.3
	5학년	45.8	20.0	20.8	30.0	20.8	40.0	8.3	10.0	-	-
	6학년	35.3	31.6	32.4	31.6	20.6	15.8	5.9	15.8	-	-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0	34.1	20.9	24.4	23.3	22.0	7.0	9.8	1.2	7.3
	홀벌이	66.7	60.0	25.0	20.0	-	-	8.3	20.0	-	-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00.0	-	-	-	-	-	-	-	-	-
	100~200만 원 미만	25.0	50.0	-	-	25.0	25.0	50.0	25.0	-	-
	200~300만 원 미만	-	-	-	-	50.0	-	50.0	-	-	-
	300~400만 원 미만	72.7	66.7	-	-	-	-	-	-	-	-
	400~500만 원 미만	60.0	50.0	-	12.5	30.0	-	10.0	25.0	-	12.5
	500~600만 원 미만	61.1	12.5	22.2	50.0	16.7	12.5	-	-	-	25.0
	600~700만 원 미만	41.7	42.9	20.8	28.6	20.8	28.6	8.3	-	4.2	-
	700만 원 이상	28.6	31.3	42.9	25.0	25.0	31.3	3.6	12.5	-	-

#### 4)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 □ 코로나19 시기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2021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34.4%, 2022년 1학기 31.0%로 2021년 1학기 이용률이 조금 더 높다(표 3-19) 참조). 2021년에 서북권의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40.3%로 다른 권역보다 높고, 2학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맞벌이 가정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42.5%)은 홑벌이 가정(15.5%)보다 약 3배가량 높다. 2022년 1학기에도 서북권(42.2%)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고, 1학년(49.7%)과 2학년(41.8%)의 이용경험이 다른 학년보다 많다. 2022년 1학기에도 맞벌이 가정(39.4%)이 홑벌이 가정(11.7%)보다 이용률이 높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유형별로는 2개 년도 모두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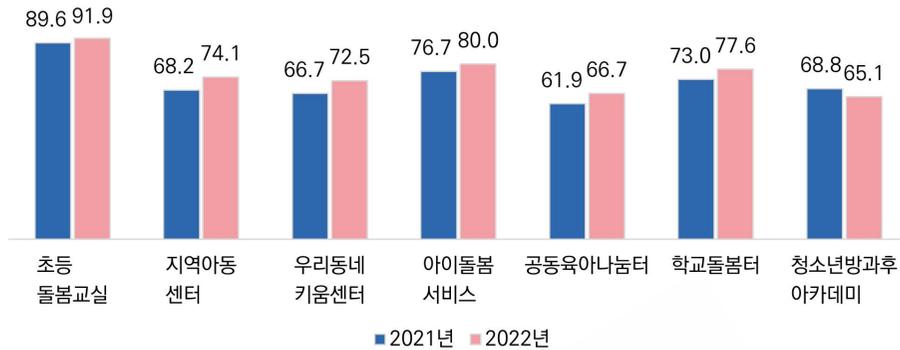
[표 3-19]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전체		34.4	31.0
거주 권역	도심권	33.0	36.6
	동북권	33.2	28.5
	서북권	40.3	42.2
	서남권	29.2	25.9
	동남권	38.1	30.5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	49.7
	2학년	47.3	41.8
	3학년	39.0	33.0
	4학년	24.9	13.6
	5학년	29.8	23.7
	6학년	18.5	1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5	39.4
	홑벌이	15.5	11.7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유형	초등돌봄교실	29.8	28.1
	지역아동센터	8.5	7.2
	우리동네기움센터	6.3	5.8
	아이돌봄서비스	7.3	6.3
	공동육아나눔터	4.2	3.6
	학교돌봄터	7.4	7.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7	7.0

##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대면수업 운영 현황

2021년 1학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위기에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60% 이상이 대면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7, [표 3-20] 참조). 2022년 1학기에는 거리두기 단계 해제로 대면수업이 증가하였다.



[그림 3-7] 기관 유형별 대면수업 진행 비율

[표 3-20]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대면수업 진행 현황

(단위: %)

구분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초등돌봄교실	89.6	91.9
지역아동센터	68.2	74.1
우리동네키움센터	66.7	72.5
아이돌봄서비스	76.7	80.0
공동육아나눔터	61.9	66.7
학교돌봄터	73.0	77.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8.8	65.1

주.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주된 돌봄방식으로, 50% 이상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 비율을 의미함

## □ 코로나19 기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돌봄기관에 가지 못하거나 휴원동안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 기관에 가지 못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

자는 2021년 10.5%, 2022년 16.5%였다.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021년에 20.6%였으나, 10명 중 1명 이상은 온라인(비대면) 돌봄이나 먹거리, 학습/놀이 꾸러미, 안부 전화 등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 참조).

**[표 3-21]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에 가지 못한 경우 제공받은 돌봄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구분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가지 못한 적 없음	10.5	16.5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음	20.6	18.9
온라인(비대면) 돌봄 제공	18.4	18.0
먹거리 제공(도시락 배달)	15.9	16.7
안부 전화	11.4	10.5
태블릿 PC 등 기기대여	8.5	7.1
학습/놀이꾸러미	14.8	12.3

주.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 대상으로 분석함

#### □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의향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52.7%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표 3-22] 참조). 거주 권역별로 서북권이 57.2%로 타 권역 대비 이용의향 비율이 높고, 저학년인 1학년(70.4%), 2학년(60.7%)이 고학년(약 40%)보다 기관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59.5%)가 홀벌이(37.0%)보다 기관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 여부에 따른 향후 이용의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2021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학부모의 51.7%, 2022년 이용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50.0%가 향후 이용의사가 있고, 2021~2022년 모두 이용한 학부모는 86.3%가 향후 이용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1~2022년 모두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34.4%만이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2] 향후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의향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52.7	47.3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48.5	51.5	100.0
	동북권	55.7	44.3	100.0
	서북권	57.2	42.8	100.0
	서남권	46.6	53.4	100.0
	동남권	54.6	45.4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70.4	29.6	100.0
	2학년	60.7	39.3	100.0
	3학년	51.9	48.1	100.0
	4학년	39.0	61.0	100.0
	5학년	42.0	58.0	100.0
	6학년	43.9	56.1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9.5	40.5	100.0
	홀벌이	37.0	63.0	100.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0.0	50.0	100.0
	100~200만 원 미만	50.0	50.0	100.0
	200~300만 원 미만	63.6	36.4	100.0
	300~400만 원 미만	55.0	45.0	100.0
	400~500만 원 미만	53.1	46.9	100.0
	500~600만 원 미만	55.2	44.8	100.0
	600~700만 원 미만	52.1	47.9	100.0
	700만 원 이상	49.2	50.8	100.0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2021년만 이용	51.7	48.3	100.0
	2022년만 이용	50.0	50.0	100.0
	2개년 모두 이용	86.3	13.7	100.0
	미이용	34.4	65.6	100.0

#### □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유형별 이용의향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유형별 이용의향은 초·등돌봄교실이 67.6%로 가장 높고, 지역아동센터 24.7%, 우리동네키움센터 18.3%, 학교돌봄터 19.7%, 아이돌봄서비스 16.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6%, 공동육아 나눔터 6.7% 순으로 나타났다([표 3-23] 참조). '초등돌봄교실' 이용의향은 거주 권역별로 도심권에서 89.8%로 타 권역 대비 매우 높고 학령별로는 2학년(77.8%)이 타 학년 대비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도 61.6%는 초등돌봄교실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초등돌봄교실 이용경험이 있는 73.9%가 앞으로도 초등돌봄교실 이용의사가 있었으며, 다른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응답자 중에서도 학교와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초등돌봄교실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3]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이용을 원하는 공적 방과후돌봄 기관

(단위: %)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67.6	24.7	18.3	16.1
거주 권역	도심권	89.8	30.6	4.1	10.2
	동북권	61.2	25.9	21.2	14.1
	서북권	74.7	19.2	17.2	18.2
	서남권	66.0	26.4	18.1	19.4
	동남권	64.6	23.6	20.5	15.5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71.4	25.4	17.5	23.0
	2학년	77.8	24.6	17.4	12.6
	3학년	70.8	20.4	18.2	13.1
	4학년	56.5	29.0	21.7	7.2
	5학년	49.1	30.9	21.8	32.7
	6학년	55.1	23.2	15.9	1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2	24.7	19.4	16.9
	홀벌이	65.4	24.8	14.3	12.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00.0	0.0	0.0	0.0
	100~200만 원 미만	50.0	25.0	25.0	33.3
	200~300만 원 미만	60.0	22.9	20.0	20.0
	300~400만 원 미만	60.7	36.1	21.3	14.8
	400~500만 원 미만	71.7	26.5	11.5	13.3
	500~600만 원 미만	73.5	25.6	17.9	12.8
	600~700만 원 미만	66.0	27.0	16.0	22.0
	700만 원 이상	66.3	18.8	22.7	15.5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21년만 이용	69.6	21.7	21.7	10.9
	22년만 이용	90.9	18.2	0.0	9.1
	2개년 모두 이용	69.7	26.7	20.4	16.3
	미이용	61.6	23.3	16.9	13.2
2021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초등돌봄교실	73.6	23.0	18.7	14.9
	지역아동센터	54.4	50.0	26.5	20.6
	우리동네키움센터	47.2	30.2	41.5	24.5
	아이돌봄서비스	56.5	35.5	25.8	27.4
	공동육아나눔터	35.1	37.8	35.1	29.7
	학교돌봄터	56.7	28.3	21.7	25.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9.1	26.3	28.1	17.5
2022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초등돌봄교실	73.9	25.4	15.8	19.0
	지역아동센터	52.6	52.6	20.5	17.9
	우리동네키움센터	52.5	35.6	32.2	30.5
	아이돌봄서비스	45.5	37.9	24.2	42.4
	공동육아나눔터	50.0	47.4	23.7	21.1
	학교돌봄터	54.7	37.3	21.3	2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51.4	35.7	21.4	24.3

주.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사례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표 3-23(계속)]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이용을 원하는 공적 방과후돌봄 기관 (단위: %)

구분		공동육아나눔터	학교돌봄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체		6.7	19.7	10.6
거주 권역	도심권	6.1	34.7	12.2
	동북권	7.1	16.5	11.8
	서북권	5.1	20.2	5.1
	서남권	5.6	17.4	9.0
	동남권	8.7	20.5	13.7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8.7	11.1	4.8
	2학년	4.8	14.4	7.2
	3학년	7.3	28.5	9.5
	4학년	10.1	26.1	11.6
	5학년	7.3	14.5	18.2
	6학년	2.9	29.0	2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3	19.6	10.2
	홀벌이	8.3	20.3	12.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0.0	0.0	0.0
	100~200만 원 미만	8.3	8.3	8.3
	200~300만 원 미만	8.6	8.6	5.7
	300~400만 원 미만	8.2	18.0	9.8
	400~500만 원 미만	4.4	22.1	13.3
	500~600만 원 미만	6.0	21.4	8.5
	600~700만 원 미만	10.0	21.0	11.0
	700만 원 이상	6.1	20.4	11.6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21년만 이용	6.5	10.9	10.9
	22년만 이용	9.1	27.3	0.0
	2개년 모두 이용	8.1	21.3	9.0
	미이용	4.1	24.7	16.0
2021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초등돌봄교실	8.1	20.9	8.9
	지역아동센터	11.8	14.7	2.9
	우리동네키움센터	11.3	11.3	7.5
	아이돌봄서비스	16.1	16.1	3.2
	공동육아나눔터	18.9	16.2	8.1
	학교돌봄터	15.0	35.0	5.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7.5	19.3	24.6
2022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초등돌봄교실	7.4	19.7	7.7
	지역아동센터	11.5	19.2	9.0
	우리동네키움센터	15.3	6.8	1.7
	아이돌봄서비스	13.6	12.1	6.1
	공동육아나눔터	28.9	13.2	2.6
	학교돌봄터	13.3	28.0	10.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0.0	15.7	20.0

주.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사례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 □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의향 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 '학교 또는 집과 가까워서'가 51.0%로 가장 높고, '비용 부담이 없어서' 13.8%, '대면 및 비대면 등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서' 10.3%, '이용시간이 맞아서' 9.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9.5% 순으로 나타났다(표 3-24) 참조).

앞으로 이용을 원하는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 유형별 이유를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60.6%가 '학교 또는 집과 가까워서'라고 응답했고 '비용 부담이 없어서(13.5%)'가 뒤를 이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3.5%가 접근성이 좋아서라고 응답했고, 18.2%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접근성이 이용의향 이유 중 가장 많고 그다음은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21.1%)'라고 응답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접근성(35.0%) 다음으로 '이용시간이 맞아서(18.0%)'가 높고, 공동육아나눔터는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서(31.0%), 접근성(19.0%), 비용 부담이 없어서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각각 16.7%를 차지했다. 학교돌봄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역시 접근성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이용시간이 맞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4] 향후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있는 이유 (단위: %)

구분	학교 또는 집과 가까워서	비용 부담이 없어서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서	이용 시간이 맞아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시설·공간이 좋아서	아이가 좋아해서	기타	계	
전체	51.0	13.8	10.3	9.6	9.5	2.1	2.2	1.4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44.9	12.2	18.4	0.0	18.4	0.0	4.1	2.0	100.0
	동북권	44.1	17.6	9.4	14.1	8.8	1.8	2.9	1.2	100.0
	서북권	57.6	10.1	8.1	10.1	6.1	3.0	4.0	1.0	100.0
	서남권	53.5	12.5	9.7	9.0	11.1	2.1	0.7	1.4	100.0
	동남권	54.0	13.7	10.6	8.1	8.1	2.5	1.2	1.9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42.1	17.5	11.1	10.3	14.3	1.6	3.2	0.0	100.0
	2학년	55.1	11.4	8.4	7.8	7.2	4.2	2.4	3.6	100.0
	3학년	52.6	12.4	9.5	11.7	8.0	2.2	1.5	2.2	100.0
	4학년	56.5	17.4	10.1	5.8	7.2	0.0	2.9	0.0	100.0
	5학년	41.8	10.9	12.7	14.5	16.4	1.8	1.8	0.0	100.0
	6학년	56.5	14.5	13.0	8.7	5.8	0.0	1.4	0.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8	13.9	10.8	10.2	10.0	2.2	2.0	1.0	100.0
	홀벌이	55.6	13.5	8.3	7.5	7.5	1.5	3.0	3.0	100.0
향후 이용을 원하는 기관 유형	초등돌봄교실	60.6	13.5	7.1	5.0	8.6	1.4	1.7	2.1	100.0
	지역아동센터	43.5	13.6	13.6	7.8	18.2	0.6	1.9	0.6	100.0
	우리동네 키움센터	45.6	13.2	21.1	8.8	8.8	1.8	0.9	-	100.0
	아이돌봄서비스	35.0	17.0	15.0	18.0	6.0	6.0	2.0	1.0	100.0
	공동육아나눔터	19.0	16.7	31.0	11.9	16.7	2.4	2.4	-	100.0
	학교돌봄터	52.0	8.1	6.5	15.4	13.0	2.4	0.8	1.6	10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50.0	12.1	6.1	16.7	4.5	1.5	7.6	1.5	100.0

####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미이용 시 자녀 돌봄 계획

전체 응답자의 47.3%는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경우 자녀 돌봄 계획으로는 '부모가 직접 돌봄'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22.7%, '집에 혼자 있게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있도록 할 계획' 15.2%, '별다른 계획 없음' 5.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부모가 직접 돌봄 계획이라는 응답은 1학년(71.7%)이 다른 학년에 비해 매우 높고 5~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5명 중 1명 이상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녀를 혼자(자녀끼리) 있도록 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홀벌이(87.2%) 가정은 맞벌이(35.3%) 가정에 비해 부모 직접 돌봄 계획이 2배 이상 높고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자녀를 집에 혼자(자녀끼리) 지내도록 할 계획이라는 응답률이 높다. 한편, 2021~2022년 모두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58.1%가 부모가 직접 돌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표 3-25]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미이용 시 자녀 돌봄 계획

(단위: %)

구분	부모가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다른 사람 (친구, 친척, 아이돌보미 등)의 도움	집에 혼자 있게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있도록 할 계획	별다른 계획 없음	기타	계	
전체	56.3	22.7	15.2	5.7	0.2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55.8	26.9	13.5	3.8	-	100.0
	동북권	57.0	20.7	16.3	5.9	-	100.0
	서북권	44.6	28.4	23	4.1	-	100.0
	서남권	58.2	23	12.1	6.1	0.6	100.0
	동남권	59.7	19.4	14.2	6.7	-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71.7	17.0	7.5	3.8	-	100.0
	2학년	60.2	26.9	8.3	3.7	0.9	100.0
	3학년	54.3	26.8	15.0	3.9	-	100.0
	4학년	55.6	21.3	14.8	8.3	-	100.0
	5학년	43.4	25	23.7	7.9	-	100.0
	6학년	56.8	14.8	21.6	6.8	-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3	34.1	22.8	7.5	0.3	100.0
	홀벌이	87.2	5.8	4	3.1	-	100.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75.0	-	25.0	-	-	100.0
	100~200만 원 미만	33.3	8.3	58.3	-	-	100.0
	200~300만 원 미만	70.0	20.0	10.0	-	-	100.0
	300~400만 원 미만	62.0	16.0	12.0	10.0	-	100.0
	400~500만 원 미만	75.0	13.0	7.0	5.0	-	100.0
	500~600만 원 미만	56.8	18.9	17.9	6.3	-	100.0
	600~700만 원 미만	42.4	23.9	28.3	4.3	1.1	100.0
	700만 원 이상	50.8	32.6	10.2	6.4	-	100.0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21년만 이용	41.9	18.6	37.2	2.3	-	100.0
	22년만 이용	36.4	45.5	18.2	-	-	100.0
	2개년 모두 이용	34.3	34.3	20.0	11.4	-	100.0
	미이용	58.1	22.2	13.4	6.0	0.2	100.0

##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미이용 이유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돌봄 사람이 있어서(20.0),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15.5%), 믿음이 안가서(14.8%), 이용 자격이 안되어서(9.1%) 순이었다. 기타 의견에서는 감염 위험 때문에 이용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많고, 돌봄 기관까지 등·하원을 할 수 없어서 이용의향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다([표 3-26] 참조).

[표 3-26]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미이용 의향 이유

(단위: %)

구분	돌봄 사람이 있어서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믿음이 안가서 믿고 맡길 수가 없어서	이용 자격이 안되어서	잘 알지 못해서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까운 곳에 없어서
전체	20.0	15.5	14.8	9.1	8.2	7.7	5.2
거주 권역	도심권	11.5	21.2	11.5	7.7	9.6	1.9
	동북권	25.9	17.8	12.6	5.2	7.4	5.9
	서북권	25.7	16.2	14.9	6.8	2.7	6.8
	서남권	18.2	15.8	13.9	13.9	8.5	7.3
	동남권	16.4	10.4	19.4	9.0	11.2	11.9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13.2	9.4	15.1	9.4	11.3	1.9
	2학년	27.8	11.1	20.4	7.4	6.5	4.6
	3학년	18.9	15.0	11.0	6.3	5.5	13.4
	4학년	18.5	18.5	12.0	13.9	13.0	8.3
	5학년	19.7	22.4	15.8	6.6	2.6	9.2
	6학년	18.2	15.9	15.9	11.4	11.4	4.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9	19.5	15.6	6.6	8.1	5.7
	홀벌이	30.5	9.7	13.7	12.8	8.4	6.2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5.0	25.0	-	-	-	-
	100~200만 원 미만	25.0	25.0	8.3	16.7	-	16.7
	200~300만 원 미만	30.0	10.0	-	15.0	10.0	10.0
	300~400만 원 미만	22.0	20.0	14.0	0.0	6.0	12.0
	400~500만 원 미만	26.0	10.0	10.0	11.0	8.0	8.0
	500~600만 원 미만	16.8	20.0	10.5	11.6	10.5	8.4
	600~700만 원 미만	22.8	14.1	15.2	8.7	6.5	8.7
	700만 원 이상	15.0	15.5	21.9	8.6	9.1	4.8
공적 방과후 서비스 이용경험	21년만 이용	7.0	23.3	14.0	7.0	7.0	14.0
	22년만 이용	-	36.4	9.1	-	9.1	9.1
	모두 이용	14.3	17.1	11.4	8.6	2.9	8.6
	미이용	23.2	14.8	15.3	9.6	8.4	7.7

[표 3-26(계속)] 공적 방과후 돌봄 기관 미이용 의향 이유

(단위: %)

구분	사교육 (학원 등) 을 이용 하려고	원하는 프로 그램이 없어서	시설과 공간이 좋지 않아서	신청 했으나 탈락 해서	부정적인 인식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어서	기타	계
전체	5.5	3.8	2.5	2.0	1.8	1.3	2.7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11.5	3.8	7.7	1.9	1.9	-	100.0
	동북권	6.7	3.0	2.2	1.5	1.5	2.2	100.0
	서북권	6.8	5.4	2.7	6.8	1.4	-	100.0
	서남권	4.2	3.0	1.8	0.6	3.6	1.8	100.0
	동남권	3.0	4.5	1.5	1.5	-	0.7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1.9	3.8	5.7	3.8	7.5	3.8	100.0
	2학년	4.6	3.7	3.7	3.7	0.9	-	100.0
	3학년	7.9	5.5	2.4	1.6	0.8	1.6	100.0
	4학년	3.7	2.8	1.9	-	0.9	0.9	100.0
	5학년	6.6	3.9	2.6	1.3	2.6	-	100.0
	6학년	6.8	2.3	-	2.3	1.1	2.3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	4.2	3.3	2.7	1.5	1.2	100.0
	홀벌이	2.7	3.1	1.3	0.9	2.2	1.3	100.0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	-	-	-	25.0	-	100.0
	100~200 만 원 미만	8.3	-	-	-	-	-	100.0
	200~300만 원 미만	5.0	15.0	-	-	5.0	-	100.0
	300~400만 원 미만	4.0	2.0	4.0	-	4.0	-	100.0
	400~500만 원 미만	5.0	3.0	1.0	5.0	-	1.0	100.0
	500~600만 원 미만	5.3	2.1	6.3	1.1	-	1.1	100.0
	600~700만 원 미만	6.5	3.3	2.2	2.2	1.1	3.3	100.0
	700 만 원 이상	5.9	4.8	1.6	1.6	2.7	1.1	100.0
공적 방과후 서비스 이용 경험	21년만 이용	2.3	9.3	7.0	2.3	-	-	100.0
	22년만 이용	-	9.1	-	9.1	-	-	100.0
	2개년 모두 이용	-	11.4	2.9	5.7	2.9	-	100.0
	미이용	6.9	2.4	1.7	1.2	1.2	1.2	100.0

### □ 위드 코로나 시기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 개선점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의 공적 방과후돌봄 서비스 개선점으로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시설이나 공간의 환경개선’이 21.0%로 가장 높다. 다음은 ‘일시/긴급돌봄 상시운영’ 17.9%, ‘접근성 제고’ 14.6%, ‘오전/저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시간대 운영(14.3%)’, ‘본인 부담 비용의 감소(11.4%)’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9.0%)’, ‘서비스 기관의 돌봄 인력 충원(6.3%)’, ‘돌봄기관의 돌봄 공간 확대(2.5%)’, ‘실시간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1.8%)’ 등이 개선점으로 나타났다([표 3-27] 참조).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다수가 돌봄서비스 기관의 시설이나 공간의 환경개선을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응답했다.



[표 3-27] 위드 코로나 시기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개선할 점

(단위: %)

구분	돌봄서비스 기관의 시설이나 공간의 환경개선	돌봄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의 감소	접근성 제고(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	오전/저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시간대 운영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는 일시/긴급 돌봄 상시운영	
전체	21.0	11.4	14.6	14.3	17.9	
거주 권역	도심권	18.8	10.9	27.7	9.9	10.9
	동북권	22.3	8.5	14.4	17.0	18.7
	서북권	27.7	12.1	9.2	13.9	17.3
	서남권	18.4	11.0	17.2	13.6	19.1
	동남권	19.0	14.6	10.8	13.9	18.6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19.0	14.5	11.7	14.0	18.4
	2학년	22.9	13.1	12.4	14.9	18.2
	3학년	20.8	10.6	17.0	14.0	18.2
	4학년	19.2	11.3	18.1	11.3	20.3
	5학년	21.4	8.4	16.0	17.6	16.8
	6학년	21.7	8.9	12.7	14.6	1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8	11.2	15.0	15.3	17.2
	홀벌이	18.9	12.0	13.6	12.0	19.5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2021년)	초등돌봄교실	21.7	15.4	13.4	14.7	15.4
	지역아동센터	22.4	14.1	11.8	14.1	9.4
	우리동네키움센터	25.4	17.5	12.7	9.5	15.9
	아이돌봄서비스	23.3	17.8	15.1	13.7	11.0
	공동육아나눔터	19.0	16.7	21.4	9.5	9.5
	학교돌봄터	20.3	16.2	13.5	13.5	12.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9.5	18.2	13.0	13.0	10.4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2022년)	초등돌봄교실	22.5	14.7	13.5	15.0	16.8
	지역아동센터	23.5	15.3	14.1	14.1	11.8
	우리동네키움센터	23.2	21.7	13.0	10.1	15.9
	아이돌봄서비스	21.3	28.0	13.3	9.3	13.3
	공동육아나눔터	23.8	19.0	23.8	11.9	9.5
	학교돌봄터	21.2	18.8	16.5	14.1	12.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20.5	20.5	13.3	13.3	10.8

[표 3-27(계속)] 위드 코로나 시기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개선할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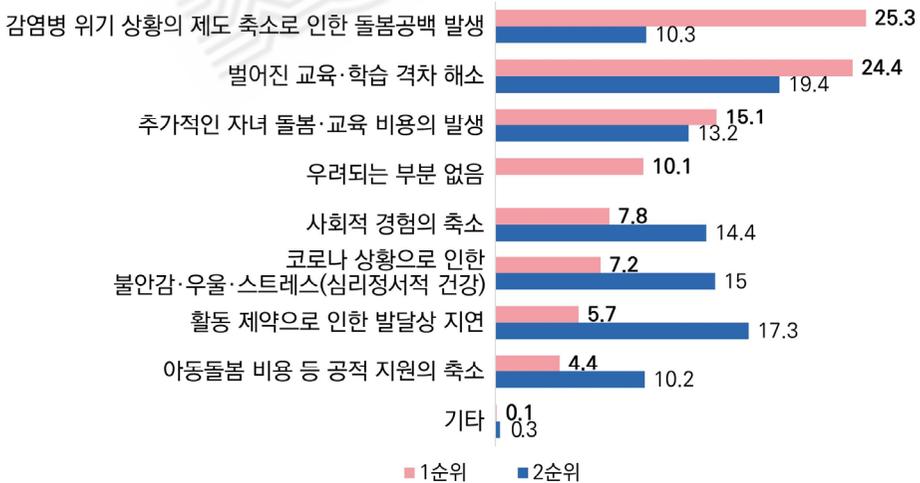
구분		서비스 기관의 돌봄 인력 총원	실시간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돌봄 기관의 돌봄 공간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	기타	계
전체		6.3	1.8	2.5	9.0	1.2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5.9	4.0	3.0	7.9	1.0	100.0
	동북권	6.6	1.3	2.3	8.5	.3	100.0
	서북권	6.9	3.5	1.2	6.9	1.2	100.0
	서남권	4.9	1.3	3.2	9.1	2.3	100.0
	동남권	7.5	1.0	2.4	11.2	1.0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6.7	3.4	3.4	7.8	1.1	100.0
	2학년	5.8	1.5	.4	10.2	.7	100.0
	3학년	6.8	1.1	2.3	8.3	.8	100.0
	4학년	6.8	1.7	4.0	6.8	.6	100.0
	5학년	5.3	.8	3.1	7.6	3.1	100.0
	6학년	6.4	2.5	3.2	13.4	1.9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	1.9	2.3	8.3	1.1	100.0
	홀벌이	7.5	1.4	2.8	10.9	1.4	100.0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2021년)	초등돌봄교실	8.0	2.3	1.7	7.0	.3	100.0
	지역아동센터	15.3	5.9	1.2	4.7	1.2	100.0
	우리동네키움센터	14.3	0.0	0.0	3.2	1.6	100.0
	아이돌봄서비스	11.0	2.7	1.4	2.7	1.4	100.0
	공동육아나눔터	14.3	0.0	4.8	2.4	2.4	100.0
	학교돌봄터	13.5	1.4	4.1	2.7	2.7	10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4.3	1.3	5.2	3.9	1.3	100.0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2022년)	초등돌봄교실	7.5	2.1	1.2	6.0	.6	100.0
	지역아동센터	12.9	1.2	2.4	4.7	0.0	100.0
	우리동네키움센터	7.2	0.0	1.4	7.2	0.0	100.0
	아이돌봄서비스	9.3	1.3	0.0	4.0	0.0	100.0
	공동육아나눔터	7.1	0.0	2.4	2.4	0.0	100.0
	학교돌봄터	10.6	1.2	1.2	3.5	0.0	10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0.8	0.0	2.4	7.2	1.2	100.0

## 5) 정책수요

### □ 위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 우려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에 따라 정부가 학교 밀집도 제한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전면등교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돌봄·교육에 우려되는 점 1순위는 ‘감염병 위기 상황의 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의 제도 축소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벌어진 교육·학습 격차 해소’ 24.4%, ‘추가적인 자녀 돌봄·교육비용의 발생’ 15.1%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벌어진 교육 및 학습 격차 해소’가 19.4%, ‘활동 제약으로 인한 발달상 지연’이 17.3%,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건강’이 15.0%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8) 참조).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과 서북권, 동남권은 돌봄공백 발생을, 서남권과 동북권에서는 교육 및 학습격차를 가장 큰 우려점으로 응답하였다. 자녀 학년에 대해서는 1~2학년은 돌봄공백을, 3~6학년은 벌어진 교육 및 학습격차 해소를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다. 맞벌이 가정은 돌봄공백을, 홀벌이 가정은 교육 및 학습격차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돌봄공백 발생을 우려하고,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에서 교육 및 학습격차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8] 위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에 대한 우려점(1순위)(%)

[표 3-28] 위드 코로나 시기(2022년 1학기) 자녀 돌봄에 대한 우려점(1순위)

(단위: %)

구분	제도 축소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추가 자녀 돌봄·교육 비용의 발생	벌어진 교육·학습 격차 해소	돌봄 비용 등 공적 지원 축소	발달상 지연	심리 정서적 건강	사회적 경험 축소	없음	기타	계	
전체	25.3	15.1	24.4	4.4	5.7	7.2	7.8	10.1	0.1	100.0	
거주 권역	도심권	25.7	23.8	18.8	9.9	5.0	5.9	6.9	4.0	0.0	100.0
	동북권	23.9	13.1	27.2	3.9	3.6	8.2	9.5	10.5	0.0	100.0
	서북권	35.3	13.3	20.8	2.3	7.5	7.5	8.1	5.2	0.0	100.0
	서남권	20.4	13.6	26.2	3.9	7.8	7.1	6.8	13.9	0.3	100.0
	동남권	25.8	16.9	23.7	4.7	4.7	6.4	7.1	10.5	0.0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32.4	17.9	11.7	4.5	8.4	5.6	8.4	11.2	0.0	100.0
	2학년	26.9	19.3	19.6	4.4	4.4	5.8	8.0	11.6	0.0	100.0
	3학년	23.5	11.7	28.8	7.6	6.1	8.0	7.6	6.8	0.0	100.0
	4학년	20.3	14.1	29.4	2.8	7.3	8.5	6.8	10.7	0.0	100.0
	5학년	25.2	16.8	29.0	2.3	3.1	6.1	7.6	9.2	0.8	100.0
	6학년	22.9	10.2	30.6	2.5	4.5	9.6	8.3	11.5	0.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6	16.1	22.1	5.0	5.5	6.1	7.0	9.5	0.1	100.0
	홀벌이	17.5	12.8	29.8	3.1	6.1	9.7	9.5	11.4	0.0	100.0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2.5	25.0	50.0	0.0	0.0	12.5	0.0	0.0	0.0	100.0
	100~200만 원 미만	16.7	33.3	12.5	4.2	0.0	4.2	25.0	4.2	0.0	100.0
	200~300만 원 미만	25.5	20.0	34.5	5.5	3.6	3.6	5.5	1.8	0.0	100.0
	300~400만 원 미만	27.0	20.7	19.8	6.3	6.3	8.1	3.6	8.1	0.0	100.0
	400~500만 원 미만	24.9	13.1	26.3	3.8	7.0	7.0	9.4	8.5	0.0	100.0
	500~600만 원 미만	24.1	17.0	21.7	4.7	6.6	9.9	5.7	10.4	0.0	100.0
	600~700만 원 미만	27.1	13.5	27.6	5.7	5.7	5.7	6.8	7.8	0.0	100.0
	700만 원 이상	25.5	12.2	23.4	3.3	4.9	6.8	9.2	14.4	0.3	100.0
공적 방과후 서비스 이용 경험	21년만 이용	29.2	15.7	21.3	6.7	5.6	7.9	5.6	7.9	0.0	100.0
	22년만 이용	31.8	9.1	27.3	9.1	4.5	0.0	9.1	9.1	0.0	100.0
	2개년 모두 이용	28.9	22.7	21.1	6.3	2.0	7.0	4.3	7.8	0.0	100.0
	미이용	21.0	11.5	29.7	3.1	6.4	7.8	9.3	11.0	0.2	100.0

## □ 위드 코로나 시기 보건상의 어려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학부모가 느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상의 어려움 1순위로는 ‘전면등교로 인한 감염 우려 증가’가 38.1%로 가장 높고, ‘자녀의 상시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13.8%,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 치료, 한시적 직장 폐쇄 등’ 11.7%,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11.4%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별다른 보건상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도 7.1%로 나타났다(그림 3-9) 참조).

권역별로는 도심권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 치료, 한시적 직장 폐쇄 등’과 ‘전면등교로 인한 감염 우려 증가’를 각각 23.8%로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약 40%가 전면등교로 인한 감염 우려가 증가한 것을 보건상의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에서도 모두 응답자의 약 30% 이상이 전면등교로 인한 감염 우려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9) 참조).



[그림 3-9] 위드 코로나 시기 보건상의 어려움(1순위)(%)

[표 3-29] 위드 코로나 시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상의 어려움(1순위)

(단위: %)

구분		전면등교로 인한 감염 우려 증가	자녀의 상시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 치료, 한시적 직장 폐쇄 등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전체		38.1	13.8	11.7	11.4
거주 권역	도심권	23.8	15.8	23.8	12.9
	동북권	42.0	12.8	11.1	12.8
	서북권	41.6	13.3	11.6	12.1
	서남권	37.5	16.2	8.7	9.4
	동남권	37.6	11.9	11.2	11.2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40.2	17.3	10.1	9.5
	2학년	35.3	12.0	14.9	11.3
	3학년	36.4	15.2	14.0	10.2
	4학년	41.8	11.3	6.8	14.1
	5학년	37.4	13.0	13.0	13.0
	6학년	40.1	14.0	8.3	1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2	14.9	11.8	11.8
	홀벌이	42.6	11.1	11.4	10.6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75.0	25.0	0.0	0.0
	100~200 만 원 미만	29.2	8.3	20.8	8.3
	200~300 만 원 미만	36.4	14.5	10.9	10.9
	300~400 만 원 미만	42.3	16.2	6.3	7.2
	400~500 만 원 미만	40.8	10.8	13.6	9.4
	500~600 만 원 미만	37.7	11.8	14.2	14.2
	600~700 만 원 미만	39.1	15.6	10.4	13.0
	700 만 원 이상	35.1	14.9	11.1	12.0
공적 방과후 서비스 이용 경험	21년만 이용	36.0	18.0	6.7	11.2
	22년만 이용	36.4	13.6	13.6	4.5
	2개년 모두 이용	32.0	13.3	19.1	10.5
	미이용	40.3	12.4	9.7	12.6

[표 3-29(계속)] 위드 코로나 시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상의 어려움(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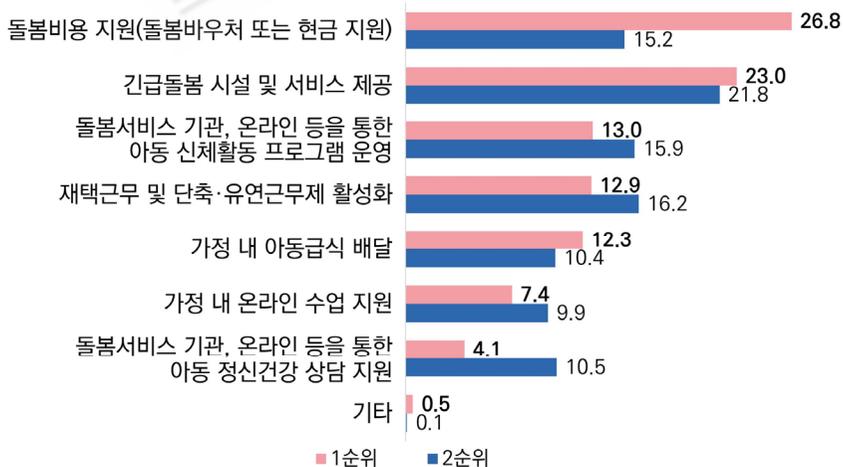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방역지침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에 따른 대응	감염위기에 따른 잦은 검사 실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별다른 보건상의 어려움 느끼지 않음	기타	계
전체		10.2	7.4	7.1	0.3	100.0
거주 구역	도심권	13.9	6.9	2.0	1.0	100.0
	동북권	8.2	7.2	5.9	0.0	100.0
	서북권	7.5	7.5	5.8	.6	100.0
	서남권	11.7	7.4	9.1	0.0	100.0
	동남권	11.2	7.8	8.8	.3	100.0
자녀 학년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7.3	7.3	7.8	.6	100.0
	2학년	12.4	9.1	5.1	0.0	100.0
	3학년	10.6	7.2	6.1	.4	100.0
	4학년	8.5	6.8	10.7	0.0	100.0
	5학년	9.2	6.1	8.4	0.0	100.0
	6학년	12.1	7.0	6.4	.6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4	7.4	7.3	.2	100.0
	홀벌이	9.7	7.5	6.7	.3	100.0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	-	-	-	100.0
	100~200만 원 미만	16.7	4.2	12.5	-	100.0
	200~300만 원 미만	9.1	14.5	3.6	-	100.0
	300~400만 원 미만	10.8	9.0	8.1	-	100.0
	400~500만 원 미만	9.4	7.0	8.5	0.5	100.0
	500~600만 원 미만	9.4	7.5	4.7	0.5	100.0
	600~700만 원 미만	11.5	6.3	4.2	-	100.0
	700만 원 이상	10.3	7.1	9.2	0.3	100.0
공적 방과후 서비스 이용 경험	21년만 이용	11.2	13.5	3.4	-	100.0
	22년만 이용	13.6	0.0	18.2	-	100.0
	2개년 모두 이용	11.3	7.8	5.9	-	100.0
	미이용	10.4	6.8	7.5	0.3	100.0

## □ 위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에 필요한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기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돌봄비용 지원’이 26.8%로 가장 높고,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23.0%, ‘돌봄서비스 기관, 온라인 등을 통한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13.0%, ‘재택근무 및 단축·유연근무제 활성화’ 12.9%, ‘가정 내 아동급식 배달’ 12.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정 내 온라인 수업 지원’ 7.4%, ‘돌봄서비스 기관, 온라인 등을 통한 아동 정신건강 상담 지원’ 4.1% 등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0] 참조).

응답자 특성별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응하는 자녀 돌봄에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응답자의 28.5%가 ‘긴급 돌봄시설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비용 지원(돌봄 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학년은 2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년은 비용 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맞벌이 가정이 홀벌이 가정보다 재택근무, 단축·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2%p 높다. 2021~2022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했던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아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욕구가 5.8%p 높고,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응답자가 4.3%p 높다. 전체 응답에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재택근무 및 단축·유연근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0] 위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에 필요한 지원(%)

[표 3-30] 위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에 필요한 지원

구분		돌봄 비용 지원 (돌봄 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긴급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가정 내 아동 급식 배달	가정 내 온라인 수업 지원	아동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아동 정신 건강 상담 지원	재택 근무 및 단축·유연 근무제 활성화	기타
전체		26.8	23.0	12.3	7.4	13.0	4.1	12.9	0.5
거주 권역	도심권	29.7	19.8	11.9	8.9	16.8	0.3	8.9	1.0
	동북권	27.9	22.0	12.8	7.5	14.8	3.6	11.5	-
	서북권	27.2	21.4	11.6	9.2	11.0	3.5	15.6	0.6
	서남권	29.8	20.7	10.7	6.5	12.6	4.5	14.6	0.6
	동남권	21.4	28.5	13.9	6.8	11.5	4.7	12.5	0.7
자녀 학령 (어린 자녀 기준)	1학년	28.5	21.8	14.0	6.1	17.3	2.2	10.1	-
	2학년	23.6	26.9	12.4	6.5	13.1	5.8	11.6	-
	3학년	29.9	21.2	9.8	8.3	12.5	3.0	14.8	0.4
	4학년	31.1	22.0	12.4	6.2	11.3	2.8	13.0	1.1
	5학년	22.9	22.1	13.0	9.9	14.5	3.1	13.7	0.8
	6학년	23.6	22.3	13.4	8.3	9.6	7.0	14.6	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7	23.4	12.9	7.6	13.5	4.5	14.2	0.2
	홀벌이	34.0	22.0	10.9	7.0	12.0	3.1	10.0	1.1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25.0	50.0	-	12.5	-	12.5	-	-
	100~200만 원 미만	20.8	33.3	16.7	20.8	4.2	-	4.2	-
	200~300만 원 미만	40.0	20.0	21.8	1.8	5.5	3.6	7.3	-
	300~400만 원 미만	31.5	26.1	6.3	8.1	19.8	2.7	4.5	0.9
	400~500만 원 미만	28.6	20.7	10.3	5.6	16.0	4.7	13.6	0.5
	500~600만 원 미만	27.8	24.5	12.3	7.1	10.8	6.1	10.8	0.5
	600~700만 원 미만	26.6	19.3	14.6	7.8	13.0	2.6	14.6	1.6
	700만 원 이상	22.3	23.6	12.5	8.2	12.5	3.8	17.1	-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21년만 이용	19.1	30.3	13.5	6.7	14.6	6.7	9.0	-
	22년만 이용	27.3	18.2	13.6	9.1	18.2	4.5	9.1	-
	2개년 모두 이용	24.6	23.8	11.3	9.0	16.0	3.9	10.9	0.4
	미이용	28.3	22.1	11.9	7.2	10.2	4.2	15.2	0.8

### 3\_설문조사 시사점

위드 코로나 시기의 아동돌봄 실태 변화를 살펴보면, 거리두기 단계 완화-해제, 전면 등교 등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녀가 혼자(또는 자녀끼리) 보내는 시간인 돌봄공백이 감소하고, 방과후학교, 사교육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 시점에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설문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드 코로나 시기 돌봄실태를 보면, 2021년에 비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4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돌봄 비용도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돌봄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응답은 2022년에 46.4%로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의 1/3이 새로운 사람을 구하거나, 6~7%가 새로운 기관을 구함에 따라 돌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시간대별 방과후 생활과 비교하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방과후학교, 사교육 이용률이 증가한 것이 추가비용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년별 위드 코로나 시기 돌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대면 등교수업 참여율이 높고, 혼자 있었던 비율도 낮지만, 여전히 1학년의 2.3%, 2학년의 6.2%가 2022년 1학기에 자녀 혼자(또는 자녀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은 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공백 시 저학년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았다. 학년이 높을수록 가족의 판단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백 발생 시 자녀 혼자(또는 자녀끼리) 시간을 보내도록 결정한 비율이 높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부모가 우려하는 점으로, 1~2학년은 돌봄공백을, 3~6학년은 교육 및 학습격차를 꼽은 것으로 보아 학년이 높아질수록 돌봄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돌봄실태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대적으로 고학년, 맞벌이, 소득이 낮은 가구의 돌봄공백이 높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가족의 결정으로 자녀가 혼자(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안전과 교육 및 돌봄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도 돌봄이 필요한 학령기 아동인 점을 감안할 때, 감염병 위기 상황에 고학년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물론 학원도 휴원하거나 학원 재

정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사례도 많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가정은 소득의 감소 등으로 돌봄, 교육을 위해 다니던 학원을 그만둔 사례도 많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전면등교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학년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였다.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공백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은 감염병 위기에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프라 및 인적 차원의 여건이 부족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돌봄공백의 차이는 사례 수가 적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상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돌봄공백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 100~200만 원 미만 가구의 40%, 2022년에는 57.1%가 자녀가 혼자(또는 자녀끼리)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돌봄공백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사교육 이용비율이 낮고,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비율도 10%p 이상 차이 나는 점과 돌봄공백이 발생한 이유로 돌봄기관의 휴교/미운영을 주된 이유로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이용하던 기관의 운영 중단 시, 대체할만한 돌봄기관 또는 인력을 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제고와 환경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의향관련 응답을 살펴보면,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의향 비율이 높고, 이용을 원하는 기관 유형도 이용경험이 있는 해당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더 높았다. 기관에 대한 인지와 이용경험이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의향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용의향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이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다. 이용의향이 가장 높은 기관도 초등돌봄교실인데 학교 안에 있어 안전하고 등·하원을 위한 별도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 가구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기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개선점으로 20.0%가 시설이나 공간의 환경개선을 응답하였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의 2019년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이혜숙 외, 2019)’ 연구에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27.0%가 프로그램의 질, 21.3%가 시설 및 공간, 18.8%가 접근성을 응답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지침상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도 아동 간 거리두기를 위한 면적 확보 및 인원 제한이 요구되었고 갑자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간 마련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시설의 환경개선 요구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04

#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FGI 조사결과



- 1\_FGI 개요
- 2\_FGI 결과 분석
- 3\_FGI 시사점

## 04.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FGI 조사결과

### 1\_FGI 개요

#### (1) 조사설계 개요

##### □ 조사 대상과 방법

FGI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의 경우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현장 전문가를 통해 추천받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한 참여 요청으로 FGI에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를 모집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가정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여부,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이에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학부모, 맞벌이 가정 학부모, 홀벌이 가정 학부모, 코로나19로 휴직·실직을 경험한 학부모 등 다양한 유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직장 생활과 양육,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대면 인터뷰가 어려워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시간상의 이유로 인터뷰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 1명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 전문가의 경우 다양한 지역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운영 경험을 듣기 위해 중구, 성동구, 강서구, 동작구, 동대문구의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네 번의 FGI를 진행하였다. 세 차례는 대면으로, 한 차례는 구조화된 질문지 중심으로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1차 기관 FGI는 학교돌봄터를 운영하는 중구를 중심으로 중구와 성동구 지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운영자를 만났다. 2차는 강서구 지역, 3차는 동작구 지역의 현장 전문가를 만났으며,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동작구와 동대문구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2명에게는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 □ 조사 내용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봄기관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는 기관의 유형과 운영방식, 코로나19 시기와 위드 코로나 시기의 아동 돌봄 및 기관 운영현황,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요 주제로 하였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기에 돌봄 기관의 운영 방식의 변화, 공간이나 물품 등 물리적 변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의 대응과 어려움 등을 심층적으로 질문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의 어려움, 위드 코로나 시기의 돌봄 변화 경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경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개선점,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4-1] FGI 조사 개요

구분	참여 대상				일시	
	자치구 (학교 소재지)	자녀 학년	코로나 시기 이용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구분		
학부모 FGI	1차	성동구	2	우리동네키움센터	A	2022. 5. 12.(목) 오전 11~12시(온라인)
		성동구	2	초등돌봄교실	B	
		중구	3	우리동네키움센터	C	
	2차	송파구	3,4,6	미이용	D	2022. 7. 14.(목) 오후 12~13시(온라인)
		-	6	미이용	E	
	서면	강서구	5,3	지역아동센터	F	2022. 7. 서면자문
구분	자치구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구분	일시	
기관 관계자 FGI	1차	중구, 성동구	학교돌봄터(2명)		A,B	2022. 5. 27.(금) 오전 9시 30분~11시
			우리동네키움센터(1명)		C	
			지역아동센터(1명)		D	
			초등돌봄교실(1명)		E	
			우리동네키움센터(3명)		F,G,H	
	2차	강서구	지역아동센터(1명)		I	2022. 6. 16.(목) 오전 9시 30분~11시
			우리동네키움센터(1명)		J	
	3차	동작구	초등돌봄교실(1명)		K	2022. 7. 12.(화) 오전 10시 30분~12시
			지역아동센터(1명)		L	
			우리동네키움센터(1명)		L	
	서면	동대문구	초등돌봄교사(1명)		M	2022. 7. 서면자문
		동작구	초등돌봄교사(1명)		N	

## 2\_FGI 결과 분석

### 1) 기관 관계자 FGI 주요 결과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시기 기관 운영 및 대처

##### ▶ 긴급돌봄 운영, 초등 온라인 수업 지원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모두 2020~2022년 기간 동안 대부분 휴관 없이 기관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으로 아침, 저녁돌봄 등 운영시간을 연장하였으며, 즉각적인 긴급돌봄 제공을 위해 정원 외 아동에 대해 선 입소 후 보고 형식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휴교나 원격수업 당시 긴급돌봄으로 운영되며 가정에서 학습이 어려운 아동을 돌보았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 아동에게 기초 학습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어 오히려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돌봄에서 25명씩 수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중략> 코로나19 시기에도 돌봄이 공백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돌봄에서 긴급돌봄도 수용하며 선생님들이 재택 근무 없이 진행하여 공백이 없었습니다.”(기관 관계자N)

“코로나 발생 이후 학교돌봄이 운영하지 않았을 때 9시~19시까지 방학처럼 확장하여 운영했습니다. 방학처럼 1년 내내 운영되었어요. 초창기 코로나19 발생 시는 임시휴원 기간에 정원의 30%(6명)까지 축소되었었는데, 성동구는 휴원 없이 긴급돌봄을 유지하기로 해서 가족돌봄이 안되는 아동들은 수용했습니다. 인원 제한 기준이 50%로 완화된 후에는 인원 제한 없이 최대한 중단없이 운영했습니다. 키움센터는 등·하원이 자유로워 아이들이 일정 시간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기관 관계자C)

“평상시는 11시~20시 운영이지만, 코로나19 긴급돌봄 상황에서는 초등 온라인 수업을 지원했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안되면 센터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돌봄 신청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센터에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20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학교 출결 때문에 8시 반으로 당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더 일찍 오게 되어 8시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기관 관계자D)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봉사자와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의 활동이 많이 제약되었습니다. 그래도 센터 내에서 기초 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기초 학습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기관 관계자L)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가 방역업무 등으로 업무량 증가해

FGI에 참여한 기관은 공통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대상 아동이 많아졌고 긴급·일시돌봄 증가, 아동이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도 증가하였으며 추가로 소독·방역업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원 등 돌봄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업무도 과다해졌다.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우려로 외부 인력 활용이 제한되어 기존 인력이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였다.

“학교가 끝나면 (돌봄교실로) 오는 것으로 운영되었어요. 이전에는 자율 귀가로 운영되었는데,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귀가 지도를 돌봄에서 담당해야 해서 선생님의 업무 부담이 늘었습니다. 2021년 학년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아동은 등교수업, 어떤 아동은 온라인 수업을 하니 스케줄 체크하는 것이 힘들었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 빨리 끝나게 되면서 더 일찍 돌봄교실에 오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기관 관계자A)

“원래 돌봄교실은 하교 후에 주축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는 수업 끝나고 급식 지원도 하는 등 돌봄을 전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업무가 과부하가 되었어요. 주 업무인 돌봄 이외에 원격 학습 도우미에 대한 행정업무도 해야 했습니다.”(기관 관계자K)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돌봄 교사 각각의 재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업무 로딩이 매우 컸습니다. <중략> 프로그램도 (준비, 직접 진행) 하고 급·간식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급식 관련 서류도 매우 많아졌습니다.”(기관 관계자 F)

“기본업무에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안전 관련 체크리스트 매일 작성, 긴급돌봄 교육청 업무보고, 가정통신문 안내(긴급돌봄), 학생 생활지도(신입생 대상), 긴급돌봄 인력 및 대체인력, 코로나19 운영비 예결산 업무를 추가로 해야 했습니다.”(기관 관계자 M)

또한 아동이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급·간식 추가 제공 등 지원업무가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자체 인력과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 ▶ 학교 역할 분담, 온라인 수업 지원도 많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위기가 심각한 시기에 학교는 전면 휴업하였지만,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의 역할을 도맡아 해야 해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어려움이 컸다. 아동의 등학교 지도는 물론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의 온라인 수업 지원도 해야 했다. 온라인 학습 기기가 부족하거나,

아동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가 기기 사용에 미숙한 경우도 많고 학교마다 각기 다른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지도에 대한 고충이 컸다. 이처럼 기관이 학교의 많은 부분의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지원이 부족하였고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공간 측면에서 코로나19 시기 기관 운영에서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 만든 교실에서는 모듈형 책상에서 개별 책상을 구비하는 것으로 변하였고, 세면대는 기존 하나에서 세 개로 만들었다. 또한, 공동으로 쓰는 용품도 개별용으로 마련하는 등 감염 우려에 따른 공간과 구비 품목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 □ 위드 코로나 시기 기관 운영 및 대처

### ▶ 운영시간 감소, 여전히 방역업무 가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점에도 여전히 기관에서는 손씻기, 환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방역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돌봄으로 시행했던 연장 운영을 계속 이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 시기보다는 학교 정상 운영으로 쉬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처럼 운영되고, 학교 시간이 늦어지면서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감소한 기관도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의 돌봄형태로 돌아갔지만, 방역에 더 무게를 신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였고 방역의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기관 관계자K)

“현재 정원이 조금 감소했어요. 대기자가 기다리던 끝에 학원을 가거나 학교 방과후 교실도 이용하게 되면서 줄어들었어요. 이용시간 역시 학교 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남에 따라 센터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어 센터 이용시간이 감소한 경우도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전면등교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 역할 분담이 되는 것 같아요.”(기관 관계자 F)

### ▶ 대면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재가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역을 나누고 자리에 앉아서 진행했던 정적인 프로그램에서 동적인 프로그램, 집단활동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숨이 차거나 땀을 흘리는 운동이 불가하였는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야외체험, 단체활동, 운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던 시기에는 외부 강사나 자원봉사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현 시점은 이러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기관 안에서 급·간식이 가능해진 점이 또 다른 변화이다. 현재에도 2020~2021년과 같이 칸막이를 사용하고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예전보다 간식 등의 섭취가 자유로워졌다. 이로 인해 길게는 6~7시간 씩 돌봄교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의견이다.

#### ▶ 돌봄교실 중심 협력체계 작동

일부 초등돌봄교실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긴급돌봄 운영으로 돌봄교실에 많은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봄을 중심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돌봄교실 운영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운영비 지원으로 방역 등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이나 방역물품 구비가 가능했고 학교 측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지속 지원으로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이 확산된 기간이 있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대체인력 풀이 있어 새로운 교사 수급이 가능했지만, 다른 자치구 또는 기관은 파견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2명의 전담 인력이 정원 20여 명의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교사 2명 모두 같은 기간에 감염되어 어쩔 수 없이 휴원을 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돌봄 교사가 코로나19 기간 휴게시간도 없고 개인적인 활동도 상당히 제한되었다.

“2022년 3월에도 돌봄은 쉬지 않고 운영했고 전체적으로 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희 자치구는 대체인력 풀이 있어 선생님 수급이 가능했습니다.”(기관 관계자E)

“저희 기관은 2명이 근무하는데 둘 중 한 명이 감염되면 한 명이 근무할 때도 있었어요. 대체인력이 바로 파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휴게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두 명이 모두 동시에 걸려서 처음으로 3일 휴원 조치를 하고 긴급돌봄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조마조마 했어요.”(기관 관계자C).

“올해 종사자 3명이 같이 확진이 되었을 때 대체인력지원센터에 연락했더니 우리동네케어센터는 거주시설이 아니어서 대체인력 지원이 안된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명의 종사자가 오후에 4~5명을 케어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교사의 휴게시간, 점심시간, 휴가는 보장되지 않고 하루종일 근무해야 했고, 확진 당시에는 자가격리 중에도 재택근무(행정업무, 상담)를 해야 했어요. 종사자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기관 관계자J)

## □ 감염병 위기 상황의 제도적 개선사항

### ▶ 학교 역할 강화와 일원화된 업무 매뉴얼 마련해야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돌봄교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예측이 어려웠지만 학교 휴업기간 동안 등교를 전면 중지하는 지침하에 돌봄교실에서 아동을 모두 수용하고 아동의 돌봄과 교육, 적응까지 도맡아 하게 되어 돌봄서비스 기관의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온라인 수업도 일부는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맡게 되면서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본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시기에) 학교는 전혀 등교를 못 하게 하는 지침이 있다 보니 학교에 오더라도 돌봄교실로 다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담임 선생님이 한 교실에 몇 명의 아이라도 가정 돌봄이 안되는 경우는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기관 관계자B)

“감염병이 발생해도 학교의 전면등교 중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학교 안의 교원이나 공무원직과는 달리 돌봄전담사는 학교 수업이 끝나는 방과후에 업무가 시작되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에게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와 특별휴가를 준다면 돌봄전담사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기관 관계자M)

현장에 적합한 일원화된 업무 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의 매뉴얼 외에도 현장 특화형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가령, 보건복지부 대응지침에 방역물품 중 락스 비치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아동에게 유해한 성분이 있어 현장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관마다 운영 방법과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각 기관의 주무 부처가 달라 행정업무나 지침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학교 재량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일원화된 업무 지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관은 한 학교의 아동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의 아동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부처, 학교의 지침을 현장에서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원화된 지침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침의 전달이 필요해 보인다.

### ▶ 돌봄 공간 확충 및 급·간식 제공 기반 마련되어야

감염 시 격리할 수 있는 공간, 상담 등 정서적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충이다. 도심 지역일수록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간은 최소조건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주로 개별 방으로 분리되어 있기보다 통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협소한 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지침상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부족한 기관이 많다는 의견이다. 또한, 감염 당시 하원 조치 전에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별도의 방이 없어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격리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학부모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고, 감염위기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증가했을 때 아동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공간상 아이들을 격리할 장소가 없어요. 교사들은 밥도 먹지 않고 여름,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 종사자가 걸렸을 때 낙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애들이 워낙 활동적이어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몸으로 놀려고 해서 제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기관 관계자D)

“공간이 없으면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거나 상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공간 배려해줬으면 합니다.”(기관 관계자C)

또한, 질 높은 급·간식 제공과 정원 외 아동을 위한 급식 제공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아동이 돌봄서비스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간식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곳은 급식실 설비나 조리사 고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자체적으로 급·간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급·간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매일 급·간식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다르고 아동의 수가 많지 않으면 배달도 여의치 않아 돌봄 교사가 직접 음식을 사러 나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용 아동에게 질 높은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방학 기간에도 급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으니 배달이 어렵고 매일 수량이 변경되어 급식 조달이 어려웠습니다.”(기관 관계자C)

### ▶ 대체인력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되어야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대체인력 지원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2~3명의 돌봄 교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경우 한 명이 감염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기관을 임시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감염위기로 돌봄 교사 개인의 일상생활 제약과 심리적 압박감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이전보다 아동이 더 이른 시간에 와서 더 늦은 시간에 가는 경우가 많아 돌봄 교사의 업무 준비 시간도 부족하였으며 휴게시간, 점심시간, 휴가 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감염위기 상황으로 외부 인력 활용이 어렵다 보니 돌봄 교사가 각자의 재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해야 해서 업무 로딩이 매우 크다. 자치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인력 지원과 교사가 휴식할 수 있는 휴가지원도 필요하다.

“교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에 대체 휴일,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기관 관계자H)

“학교 교사는 2020년 초 코로나 시작 시기 3월에서 4월 중순까지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이후 시간에도 수시로 재택근무 시행하였으나, 돌봄 교사들은 전원 학교에서 긴급돌봄과 오후돌봄을 진행하였습니다.”(기관 관계자N)

또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며 학교의 역할까지 많은 부분을 도맡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 ▶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인터넷 활용 교육 지원 필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학교, 보건소 등 지역사회기관, 학원 등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기관은 학교나 학원의 확진 상황을 알 수 없어 기관 내 감염을 미리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통하고 감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학원이나 보건소, 지역의 사교육 기관(학원 등)과 소통이 되지 않아 아동의 감염 여부 알 수 없고 예방하기 어려운 점이 힘들었습니다.”(기관 관계자)

비대면 수업 증가에 대비한 실질적인 컴퓨터, 인터넷 활용 교육 역시 필요하다. 학교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시스템이 달라 온라인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아동 대상의 실질적인 웹사이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저학년은 아동을 지원하는 보호자, 학습을 돕는 교사 역시 기본적인 온라인 기반 학습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종사자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권한이 없어 학습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와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동,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온라인 학습지도 관련해 학교마다 사용하는 알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보호자가 아니어서 접근권한이 없어 학부모(보호자)나 학교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상 원활한 온라인 학습지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학습지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실질적인 웹사이트 교육이 필요합니다.”(기관 관계자D)

이외에도 예산의 한계로 질 높은 기자재, 비품 등을 구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한선 제한이 있어 방역물품 등을 구입할 때 예산에 맞춰 구비할 수밖에 없어 다른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 2) 학부모 FGI 주요 결과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의 대응

####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시기에는 휴가, 휴직, 그나마 어려워 퇴직도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학교의 개학 연기와 전면 휴업 등으로 많은 학부모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초기 정부 차원의 긴급돌봄 시작 전에는 돌봄공백이 매우 커 휴직을 선택하거나 급하게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의 학부모는 휴직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도 휴직을 연장하는 등 근로의 지속과 수입원 감소의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코로나 발병연도인 2020년에 당시 1학년 입학 예정이었던 둘째가 입학을 하지 못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은 등교가 아닌 집에서 EBS 채널 시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집에 주양육자가 있어야 했고 마침 아이의 1학년 적응을 위해 엄마인 제가 휴직을 했었기에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들만 집에서 끼니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지역아동센터도 휴원을 반복하였고, 급식은 급식카드로 지원되었습니다. <중략> 직장을 다니면서 주 3회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외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의 직장 또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이 아니었고, 저학년 아이들만 가정에 둘 수 없었기에 복직을 미루고 휴직을 연장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학부모F)

“돌봄도 마찬가지로 외부센터(돌봄서비스 기관)를 하나씩 하고 있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확진자로 인한 귀가나, 아이들이 혼자 집에와야 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반차를 쓰고 달려가거나 할머니의 도움으로 갑작스럽게 대처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30분 내로 데리고 가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올해는 다음날 정상등교가 가능했는데 작년은 코로나 가이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접촉이 있거나 확진되면 하루가 아니라 며칠 등교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 연차를 내거나 할머니에게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사례 등이 1년에 4번가량 있었습니다”(학부모B)

오히려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보다 2021년에 일을 그만둔 학부모도 있었는데, 2020년에는 학교가 전면 휴업하고 일정 기간 학교를 보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었지만, 등교를 재개한 시점에서는 갑작스러운 하교나 휴교에 대처할 수 없어 회사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퇴직을 하게 되었다.

“2020년도는 학교등교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등 대처를 할 수 있었지만, 2021년도는 등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데리러 오라고 하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처가 더 어려웠어요. 당장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녀가 세 명이다 보니 돌봄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월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어요. 긴급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오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매일 오는 사람을 구하는 경우 다시 학교에 가게 되면 돌봄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일시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세 명이니 첫째는 고학년이라 돌봄이 필요 없고 셋째만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돌봄 비용은 세 명을 모두 받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학부모D)

또한, 직장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이나 밀접접촉에 따른 격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확진 또는 밀접접촉 소식으로 자녀 하교를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급작스럽게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출근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당일에 자녀가 하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처음에는 반차를 쓰고 조퇴를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데, 1~2년 지속되니 조퇴 허락을 받기도 쉽지 않고 부모님께 연락해 한 시간 거리를 급하게 택시 타고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학부모E)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자녀를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저는 전업이어도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야 해서 일상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할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도와주시는 분을 주기적으로 썼어요. 아이케어는 제가 하고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을 써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학부모C)

#### ▶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돌봄기관 정상 운영으로 돌봄 부담이 완화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등교와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기관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돌보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학부모와 아동 모두 익숙해지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염병 위기 상황 대처가 수월해졌다.

“다행히 코로나의 치명률이 낮아지고 위드코로나 단계로 되면서 아이들의 돌봄기관들도 조금씩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학부모F)

“일단 제가 퇴사를 하기도 했고 작년보다 자녀들도, 학부모도 익숙해지고 돌봄 공백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낮에 2~3시간씩 잠깐 일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구해서 이전보다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학부모D)

“이 상황이 익숙해져서 당황하는 시간이 줄었고 지난 2년간 자녀가 고학년이 되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음식만 준비해놓으면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상황이 나아졌어요.”(학부모E)

한편, 위기 상황에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이 긴급돌봄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이전보다 긴급돌봄 수요가 높아져,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1학년부터 돌봄을 이용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 때와)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친구들과의 교류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학교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또 돌봄 수요가 많아지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돌봄 순위에서 밀려 학교와 먼 곳의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아쉬운 점은 있어요”(학부모C)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의 애로

### ▶ 긴급돌봄으로 돌봄 부담 완화, 그러나 일부는 이용에 제약받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은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운영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치구별 지원의 차이가 크고 거리상 자녀가 도보로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긴급돌봄 이용이 어렵기도 하였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 맞벌이 여부 등 자격요건이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을 제약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홀벌이인 학부모C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부모D는 돌봄이 필요함에도 돌봄교실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sup>21)</sup>

“돌봄교실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전업이다 보니 돌봄교실에 들어가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돌봄교실이 확장되고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했으면 해요. 돌봄교실에서도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학부모A)

“작년에 돌봄교실을 운영했지만, 맞벌이만 이용이 가능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니 요건이 되지 않아 초등돌봄을 이용할 수 없었고, 지역사회 기관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이들끼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첫째 때는 맞벌이여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역, 학교마다 모집요강이 달라 이전에는 다자녀인 경우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곳은 맞벌이만 가능해서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불가해요.”(학부모D)

한편, 학부모C는 학교 차원에서 돌봄이 잘 갖춰져 있는 초등학교를 선택하였고,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기에도 매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여 돌봄공백을 거의 겪지 않았던 사례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학교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학교에 따라 돌봄 이용에 있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휴교를 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던 때에도 지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은 긴급돌봄을 시행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학년 때부터 학교 돌봄이 잘 되어 있어서 00초를 선택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돌봄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초등돌봄교실에서 원격 온라인 돌봄을 제공해줘서 좋았어요. <중략> 아이는 매일 등교하여 학교에 가서 학교 돌봄선생님 지도하에 온라인 수업도 받고, 학교도 돌봄선생님 지도로 할 수 있었어요.”(학부모C)

“돌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초등돌봄교실 자체에 너무 만족하면서 1~2학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맞벌이라서 보낼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업주부는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팬데믹이 왔을 때 전업주부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서브 육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학부모B)

#### ▶ 급식 제공 조건의 강화로 급·간식에서 어려움 겪어

학부모들은 공통으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급·간식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당시, 급식실 인원 제한으로 급식 시간이 당겨지고, 교실 내 간식 섭취가 제한되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점심식사 후 4~5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학령기 아동의 신체 발달과 영양 섭취 측면에서 대안적인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돌봄서비스 기관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아동은 식사가 중요한 이슈인데,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대

21) 초등돌봄교실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파트타임이나 홀벌이인 경우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어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면이 가능했을 때는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고,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사 쿠폰과 도시락을 제공한 곳도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급식실 밀집도 때문에 급식시간 변경을 해서 11시에 일찍 점심을 먹고 4시에 돌봄이 끝날 때까지 간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이 4~5시간을 아무것도 섭취하지 못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물은 허용되지만 아이들 분위기가 안 마시는 분위기라서 밖에 나가서 마시거나 안 마셨어요. <중략> 급·간식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고, 집에 와서 저녁을 일찍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외부 음식을 가져갈 수도 없었어요. 작년 1학기까지 먹게 하다가 2학기부터 지금까지는 간식 지참이 안 돼서 물만 먹고 오는 정도예요.”(학부모B)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먹는 부분이 가장 커요. 가장 아쉬웠으면 하는 것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관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줬었는데 아이가 안 먹고 오는 날도 많았어요.”(학부모A)

“거주지 주변에서 저녁식사까지 편안하게 제공해 주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은 저녁을 제공해 주지 않았고 7시까지 이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5시까지 운영하며 5시 이후 돌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않아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문의당시) 저녁시간까지 운영하고 저녁식사를 선택하면 도시락 형태로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이용 아동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해당 기관에서 대면이 가능했을 때는 돌봄과 식사 제공을 받았고, 대면이 불가능했을 때는 식사쿠폰 및 도시락을 제공 받았습니다.”(학부모F)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활동 제약 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2021년 시기에는 학교에서 대화나 단체 놀이, 야외 놀이 등이 제한되어 아동의 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다. 돌봄서비스 기관의 프로그램 역시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대면 수업이나 체육 활동, 공동생활의 제약으로 프로그램이 일관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불규칙하게 운영되었다. 이에 아동들이 친구와의 교제, 사회적 교류, 신체·단체활동이 많이 제한되었다. 2022년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는 전면등교와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신체활동, 단체활동 등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돌봄 순위에 밀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돌봄 중심뿐만 아니라 개별 상황에 맞는 돌봄 지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개선할 점

첫째,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양질의 급·간식 제공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아동이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관과 학부모 모두 아동의 급·간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오랜 시간 기관에 머물러야 하는 아동의 경우 간식은 물론 저녁 식사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양질의 식사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이 필요하겠다. 또한, 어른과 달리 성장기의 아동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지만 적절한 시간에 양질의 급·간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식이나 급식에 대해서는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에게 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지침을 교육부에서 역행하는 느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급·간식 측면에서는) 허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학부모B)

“다른 학교의 경우 교내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있었어요. 학교나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간식을 허용해줬으면 합니다.”(학부모C)

“식사문제는 작년은 시설이 폐쇄되어서 시설이 있다고 해도 활용할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집에만 있었는데,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할 때 도시락 배달이 제공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긴급하게 하교할 때 배달 음식 말고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학부모F)

둘째, 돌봄교실 정원 증원 및 기관 확충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 맞벌이 관계없이 돌봄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소득기준, 맞벌이와 상관없이 힘든 팬데믹에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때는 거의 무료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초등학교가 되니 사교육 등 다른 지출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대안적인 보육 서비스가 부재한 것 같아요. 방과후도 돈을 내고 (다른 서비스도) 다 돈을 내야 해요. 특히 어린 나이에는 대안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학부모B)

“돌봄인력과 시설이 너무 없다는 것이 한계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대기자가 많아서 순번이 돌아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아예 선택지로 두지 않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가까운 곳이 없고 멀리 가야 해서 더 불안하고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주민센터처럼 근거리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확충되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학부모F)

셋째, 개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이다. 기존에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던 시기에는 접촉을 최소화하고 돌봄 기능을 최대로 했던 것에서 집단활동, 야외 및 협력 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 더욱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지난 1~2년간 발생한 돌봄공백과 학습격차를 메울 수 있는 지원도 요구된다.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2020~2021년 당시는) 일관적으로 지속되게 하지 못하고 절반은 하고 절반은 하지 못했고 중단되거나 불규칙하게 진행되었어요. <중략> 아이를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아이에 맞게 해줬으면 해요. 아이가 해야 하는 숙제 지도를 원하는데 어떤 센터에서는 숙제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개별 상황에 맞게 돌봄 위주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학부모C)

“첫째가 3학년이었을 때와 셋째가 현재 3학년일 때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이러한 학습,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학부모D)

넷째, 돌봄비용 지원 측면이다. 감염병 위기 시 돌봄 수요는 많지만, 공공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은 한정된 상황으로 학부모의 돌봄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높았다. 긴급하게 돌봄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 민간은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으며 이로 인해 퇴직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사람을 쓰는 비용과 월급을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퇴직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퇴직하게 되었어요. (돌봄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이 심각할 당시 소상공인 등은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돌봄공백에 따른 부모 퇴직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학부모E)

“다자녀(초등학생 자녀 3명 양육)이기 때문에 같은 1시간이어도 자녀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요. 첫째는 고학년이어서 셋째만 도움이 필요한데도 비용은 세 명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 거죠. (돌봄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커지니 엄마가 퇴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간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지불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맡겨놓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억울하고 부담감이 느껴졌어요.”(학부모D)

다섯째, 고학년에도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존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주로 저학년이 우선 대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고학년 역시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은 돌봄에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학부모C)

“(특히 고학년의 경우) 아이들끼리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유혹이 많아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도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고학년을 위한 공적 방과후 돌봄기관이 있다면 굳이 보낼 필요 없는 학원을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비는 시간의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적 돌봄이 많이 생겨서 긴급한 상황에 사적돌봄이 아닌 공적 돌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바뀌길 바랍니다. 지금은 공적 돌봄은 아예 후보로 보지 않고 어차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학부모D)

“(현재 자녀가 6학년) 시간이 비지 않도록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적 돌봄서비스는 비용도 저렴하지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실질적으로 고학년도 이용가능하도록 많이 확대했으면 해요. 돌봄도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사교육을 감소할 수 있도록 돌봄의 질을 신경 써주었으면 합니다.”(학부모E)

여섯째,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학령기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돌봄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돌봄, 급·간식 등을 갖춘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2021년 등교가 가능했던 시점에 퇴직을 경험한 학부모 2명의 경험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어린 자녀가 혼자 귀가하거나 자녀들끼리만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팬데믹이 되면서 더 예측이 불가능해졌어요. 전반적으로 가족의 생활, 정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육, 돌봄, 식사 등 예측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학부모B)

일곱째, 돌봄 공간 확충으로 유사 감염병에 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로 아동돌봄 공간에 제약이 많이 따라 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유사 감염병 대비하여 돌봄 공간을 확충에 대한 개선의견을 보였다.

“장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들었어요. 이러한 규제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안전한 곳이라면 이러한 규제가 풀리고 정비되었으면 합니다.”(학부모C)

### 3\_FGI 시사점

현장 실무자와 학부모 대상의 FGI에서 앞으로의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개선할 점을 정리한 내용은 [표 4-2]와 같으며, FGI에서 도출한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4-2] FGI 종합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개선점

구분	실무자	학부모
인프라/제도	급/간식 지원	질 높은 급/간식 제공
	현장 매뉴얼 및 감염병 대응 체계적 시스템 마련	돌봄 예측 가능 시스템 구축
	학교 역할 증대	정원 증가
	공간 확충	돌봄 공간 확충
프로그램	(종사자)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 교육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	(종사자)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돌봄공백 완화 서비스 지원
	대체인력 지원	
연계	지역기관 네트워크 강화	-

첫째,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공간 확보 및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조사결과와도 일관된 것으로 조사에서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개선점 중 환경개선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확진 또는 감염위기가 있는 아동을 일시 격리하거나 밀집도 지침을 따를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 FGI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급·간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설에 대한 공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향상이다.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과 기관 입소와 같은 자격조건에 대한 접근성을 모두 포함한다.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이나 학교돌봄터는 학교 안에 있어 이동에 무리가 없지만, 저학년 일수록 아동이 학교 밖의 돌봄기관으로 혼자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집이나 학교와 거리가 있는 곳은 아동이 혼자 갈 수 없어 돌봄서비스 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어도, 가족이 등·하원이 가능하거나 별도의 등·하원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물리적 접근성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의 확충이나 집-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자격조건과 관련된 접근성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은 주로 맞벌이 부모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홀벌이인 부모는 이용이 어렵다. 감염병 위기 상황은 맞벌이 여부를 떠나 누구나 겪는 어려움으로, 유사 감염병 상황에 맞는 자격기준 정비가 필요하겠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학년의 돌봄공백이 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학부모 FGI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이 주로 저학년 중심이다 보니 저학년 때부터 기관을 이용하였던 아동이 이용 의사가 있어도 고학년이 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돌봄 차원에서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여전히 안전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사와 FGI에서 고학년 역시 돌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돌봄공백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셋째,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 상황은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염병 위기로 아동이 더 오랜 시간을 돌봄 기관에 머무르게 되면서 급·간식 섭취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학부모 FGI에서는 자녀의 급·간식 지원이 가장 중요한 의견 중 하나였는데, 특히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 신체활동을 위해 양질의 급·간식 섭취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드러났다. 실무자 FGI에서도 아동의 급·간식 섭취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감염위기 대응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급·간식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과 달리 더 많은 아동을 더 오래 돌보다 보니 급·간식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와 비용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해 급·간식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한 급·간식 지원이 필요하겠다. 현재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리실을 마련하거나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아동의 수요에 맞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배달 업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거나, 격리 시 도시락 배달, 기관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공적 비용지원 등이 필요하겠다.

넷째,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한 돌봄 중심의 협조체계 조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휴원 없는 긴급돌봄 운영으로 많은 가정이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었다.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이 늘어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하긴 했지만, 코

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 기간 그만큼 돌봄서비스 기관의 중요성과 개선점이 상당 부분 도출되었다. 학교 휴업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기능이 확대되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고, 학교와 더 세부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비대면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점과 미비한 점을 다수 발견하였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기관이 해야 할 추가적인 업무도 확인하였다.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해당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사회 돌봄 중심의 협조체계를 조성해 앞으로의 감염병 위기 대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05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지원 방향과 전략**



1\_방향과 원칙

2\_전략

## 05.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지원 방향과 전략

### 1\_방향과 원칙

#### 1) 방향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변종 발생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위기 인식 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학령기 돌봄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학령기 아동의 돌봄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등의 재난에 상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지향해야 한다.

#### 2) 원칙

##### □ 연속성

코로나19 시기 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진 했지만, 설문과 FGI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일시적인 학령기 아동돌봄의 중단 또는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학령기 아동돌봄은 끊김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아동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한다.

##### □ 형평성

FGI에서 긴급돌봄으로 인해 기존에 돌봄 이용자가 돌봄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수요보다 돌봄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초등돌봄은 이용하고자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점차적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향해야겠지만,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는 우선 저소득층 등 배려 대상자가 무료 이용으로 격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형평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 연계성

학령기 아동돌봄은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돌봄기관과 마을돌봄 기관 간 연계 협력해야 한다. 학교와의 연계로 마을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의 방향 및 원칙과 더불어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 돌봄 방향 및 전략

## 2\_전략

### 1) 중단없는 돌봄을 위한 인프라 정비

#### (1) 돌봄 공간 확충

전례 없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그간 사용해 오던 돌봄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1개 실을 여러 공간으로 구획해서

운영했다.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도 학생 인당 3.3㎡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따로 활동실을 구분하여 배치하기도 하지만 별도 구분된 공간이 아니라 활동존(Zone)으로 구획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 FGI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실로 구성되지 않은 초등돌봄공간은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던 단계적 일상회복 전에는 거리두기 1단계에는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였고, 2단계에는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활동은 자제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았다(표 5-1 참조).<sup>22)</sup> 따라서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돌봄 공간의 인당 단위면적을 최소 6.6㎡로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표 5-1] 기관별 시설기준

기관 유형	시설기준
초등돌봄교실	전용교실 및 겸용교실, 꿈을 담은 돌봄교실은 교당 1실 크기로 설치 권장(66㎡이상) 특별실 등 좁은 공간을 활용한 돌봄교실 구축도 가능하나 돌봄교실 정원이 25명 내외임을 고려하여 돌봄교실 구축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 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이란 :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 전용면적 산정 시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만 산정하며, 이외의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아동 정원에 대한 지침에서 아동 1인당 최소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준수
아동복지시설	시설의 설비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나목 및 2. 시설별 기준 참조. 공통기준으로 30인 이상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모두 구비 ※ 거실: 아동 1명당 6.6㎡ 이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출처. 초등돌봄교실: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2022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2022,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1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 6~8판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공간 확장은 규격화된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 돌봄 전용교실 외에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는 1~2학년 교실을 활용해서 돌봄교실을 확장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초등돌봄 공간의 인당 면적 확대와 더불어 돌봄 공간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해 나갈 것을 권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돌봄교실 및 우리 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활동실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보다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격벽시설로 된 공간 마련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집단활동실 1실 외에 분리된 프로그램실 1~2개 실, 급간식실을 구비하는 공간 구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돌봄공간 구성 전후

한편, 일본은 코로나19 시기 학교 휴업기간에 방과후 아동클럽 등을 활용한 아동의 돌봄 장소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2020년 3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아동의 돌봄 장소 확보를 위한 시책방안에는 돌봄 장소 확보를 위한 인적 체제의 확보, 학교 교실 등의 활용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임시 휴업 기간에는 기존에 교직원의 일상적 업무가 아닌 방과 후 아동클럽의 업무에 교직원이 학습지도, 학생지도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고, 방과후 아동클럽 운영 법인, 시정촌의 관계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으로 아동 돌봄을 위한 인재와 장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시 휴업에 따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실,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발표하였다(김지영, 2020; 장혜승,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휴업기간에 지역사회 돌봄 기관이 대다수 아동을 수용해야 했던 한국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해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의 공간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돌봄 인력 충원

초등돌봄 현장 관계자 대상 FGI 결과, 코로나19 시기 동안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봄 시간의 연장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업무 부담은 우리동네키움센터, 학교돌봄터 등의 돌봄 전담사 및 돌봄 교사의 몫이 되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체크 리스트, 돌봄 공간 및 교구 및 기자재 소독, 코로나 대응 상황 보고 등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나,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 정원에 따른 돌봄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돌봄 인력을 현재보다 1.5배 정도 추가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조사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7일간 격리 또는 재택근무로 인해 돌봄 전담사 및 돌봄 교사 혼자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감염병 등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대체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초등돌봄을 위한 대체인력 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대체인력 풀은 감염병 위기 상황만이 아니라 상시 돌봄 운영에서도 돌봄 교사의 휴가 등 근로 조건에 따른 돌봄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도 운영될 필요가 있다.

돌봄 대체인력 풀은 학교돌봄터 사업을 운영하는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는 온종일 추진지원단에서 대체인력 풀을 마련하여 비상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외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추가 근무 발생에 따른 추가 근무 수당을 마련하여 지급 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120호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시설 직원 대체인력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형 초등돌봄교사 대체인력풀(Pool) 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인원 : 총 9명

구분		인원	직무내용
분야	직종		
중구형 초등돌봄센터	돌봄교사	9	· 돌봄 관련 제반 업무

[그림 5-3]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대체인력 풀 운영 사례

### (3) 돌봄 시간 연장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상황에서 공적 돌봄 기관의 돌봄 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 중단 없는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 돌봄에서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 따라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하고 있으나, 대체로 5시쯤이면 돌봄이 종료되며, 마을돌봄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저녁돌봄을 하고 있다. 돌봄 시간 연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많아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이 이루어지거나 부분적으로 학원 등의 사교육 시장에서 돌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돌봄공백이 커진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아침돌봄 시간을 늘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침 7시부터 운영하여 시간상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초등돌봄교실은 학생의 요구를 조사하여 저녁돌봄을 늘려 부모의 퇴근 전의 돌봄공백 시간을 메울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

### (4) 중단없는 급·간식 제공

FGI 조사 결과, 학부모 및 돌봄 관계자가 코로나19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급·간식 제공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하였다. 그만큼 학령기 아동돌봄에서 급·간식이 중요하다. 등교 중단, 또는 확진으로 인한 가정 학습을 할 경우에도 급·간식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초등돌봄기관에서 한 것처럼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포함하여, 가정에 혼자 있는 아동 대상으로 배달 도시락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대상으로, 가정마다 꾸러미를 전달하고, 유선을 통해 결식아동임이 확인된 경우 급식을 전달하며 비대면으로 돌봄을 제공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중단없는 급·간식 제공이 필요하다.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더라도 계획적, 일상적으로 차질 없는 도시락 배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격차없는 돌봄을 위한 학령기 아동돌봄 서비스 강화

### (1) 돌봄 정원 조정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휴교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학부모도 있지만, 공적 초등돌봄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 자녀 돌봄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돌봄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sup>23)</sup> 학부모들이 공적 초등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개인적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에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에 따라 센터당 이용 아동 수를 제한하였다. 많게는 50% 감축하여 운영한 시기도 있어, 그에 따라 학부모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공적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므로, 추후 돌봄 정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돌봄 공간으로서는 돌봄 정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1실당 정원은 25명이며,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센터당 정원은 규모에 따라 20~25명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현재의 돌봄 정원을 일시적으로 1.5배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 초등돌봄 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공백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정원 확대 시 초등돌봄교실은 학내 1, 2학년 교실을 활용하여 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돌봄 비용 제공

코로나19 시기 정부에서는 학부모에게 돌봄 쿠폰을 제공하는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직접 지원을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인 돌봄 관련 비용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적 초등돌봄기관 이용에는 많게는 5~10만 원의 비용이 든다(표 5-2) 참조).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의 이번 대응에서 정책적 지원으로 해 본 바 있는 돌봄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재난에 준하는 상황을 마련하고,

<sup>23)</sup> 앞서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9년 설문조사 대상과 2022년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어 비교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돌봄 비용을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할 것인지, 또는 소득과 연동해 제공할 것인지 등 그 기준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돌봄비용 지원방안을 마련할 시에는 관련 법률 및 조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2] 공적 방과후 서비스 기관 유형별 이용료**

기관 유형	이용료
우리동네키움센터	무료, (간식비 포함) 일 2,000원, 월 1만 원, 2만 원, 4만 원, 5만 원으로 기관별 상이
지역아동센터	무료 (단,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 거쳐 수납 가능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및 수익자 프로그램 외 무료

출처.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내부자료, 2022년 4월 30일 기준

지역아동센터: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63.

한편, 일본에서는 부모의 일시·영구 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나 급식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비용 지원책을 마련하였다([표 5-3] 참조).

**[표 5-3]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비용 지원**

구분	내용
부모 휴직 지원	부모의 일시·영구 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1:1 매칭 하루에 8,330엔(약 10만 원) 지급하는 보조금 시스템 마련
자영업자	일정 기준 충족 시 4,100엔(약 5만 원)을 지급
급식비	- 학부모에 2020년 3월 2일부터 봄방학까지 급식비 면제 - 급식 관련 이해관계자들(재료제공자, 급식운영자, 농부들)에 특화된 재정지원책 마련
방과후 아동클럽 재정지원	- 초등학교 임시 휴업에 따라 오전부터 운영하는 경우 하루 10,200엔(한화 약 116,000원) - 초등학교 임시 휴업에 따라 지원의 단위를 새롭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하루 36,000엔(한화 약 409,000원)

출처: 김지영, 2020; 장혜승, 2020.

캐나다는 필수분야 종사자의 자녀에 긴급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무상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몬트리올 영어교육청(English Montreal School Board, 이하 EMSB)은 의사, 간호, 경찰, 소방관 등 필수분야 종사자의 4~13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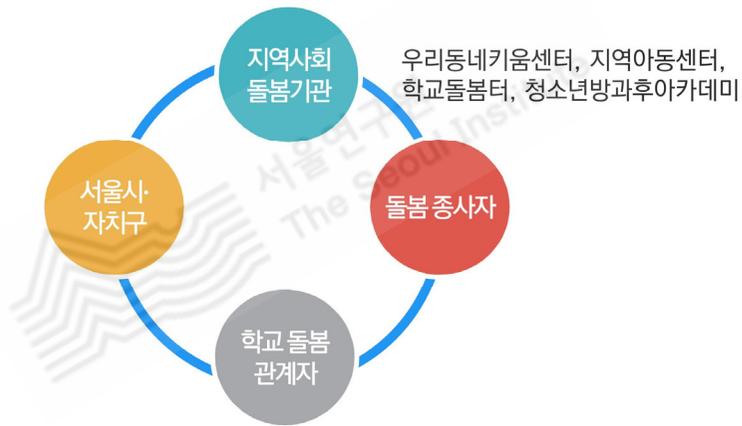
녀에 아침 7시~저녁 6시까지 긴급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온타리오 주 정부는 필수 노동자 자녀에 무상 긴급돌봄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

### 3) 빈틈없는 돌봄을 위한 돌봄 연계체계 강화

#### (1) 돌봄 네트워크 강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때 초등돌봄기관 간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절실하였으나, 학교와 마을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와의 네트워크는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림 5-4]와 같이 초등돌봄교실 외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돌봄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그림 5-4] 지역사회돌봄협의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지역돌봄협의회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표 5-4] 참조). 특히, 이번 상황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며, 재난 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 마련과 협력 체계 구축, 인력 배치, 자원 배분 및 공유 등에 대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표 5-4]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코로나19 대응지침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응지침을 안내함. 대응지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과 방역 단계 변화에 따라 지침을 개정, 추가하여 안내함. 이 지침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강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근거해 수립된 사회복지시설 공통 대응지침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것으로, 1~11판에 걸쳐 대응 조치사항은 차이가 있으나, 주된 대응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위생수칙 교육, 홍보, 예방교육, 위생관리 등
  - 해외 여행이력에 따른 조치, 진단검사 실시 안내 등
  - 감염관리 전담직원 배치,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관리
3. 의심환자·확진자 발견 시 조치사항
  - 보건소 신고, 보건소 조치 전 대응방법, 보건소 이송 후 대응, 모니터링 등
4. 시설 운영 세부사항
  - 출입 규칙, 유증상자 지침,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내 취식 관련 규칙
5.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행사 또는 교육 시행에 대한 권고 조치사항
  -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6. 시설 휴원 시 추가 조치
  - 휴원 시 기본서비스 유지 조치에 대한 원칙, 연계돌봄, 국고지원
7. 행정사항
  - 돌봄 필요 아동은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도록 필수 운영시간 준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8.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과 소통,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등 현장지원 관련 사항
  -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돌봄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위한 조치
  - 격리시설 마련 등
9. 기타
  - 행동요령, 예방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손씻기와 기침예절, 신고대상 안내,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출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 1~11판(서울시 내부자료)

## (2) 돌봄 이용 시스템(돌봄 포털) 연계

코로나19 시기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등교 중단에 따른 돌봄공백 대처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늘 다니던 공적 초등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대체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돌봄을 이용할 수 없어 돌봄공백이 생기는 경험을 하면서, 돌봄 이용을 연계하는 시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호소하였다.

현재 돌봄 이용 신청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포털로 신청을 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돌봄 기관이 폐쇄될 경우, 당장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자녀끼리만 두고 출근하는 상황에서 돌봄 포털을 통해 일시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감염병 시기만이 아니라 일상적 시기에 학령기 자녀의 돌봄을 찾아보고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가 한 곳에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돌봄 현황을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돌봄 연계통합시스템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수요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3) 감염병 등 비상상황 대응 조례 및 지침 정비

전례 없는 코로나19 시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학령기 아동돌봄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응책에 따른 일상적 운영이 힘들었다. 초기의 대응에서의 어려움을 반추하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도 종료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초등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후 유사한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별도의 조례 제정뿐 아니라 이미 제정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상상황 관련 조항을 넣는 방식의 우선 조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제7조)에 감염병 위기 등 비상상황에서의 돌봄시설의 운영을 포함하도록 한다([표 5-5] 참조).

[표 5-5] 조례 조항 추가(안)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현재)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조항 추가)
<p>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p>	<p>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p> <p>⑥ <u>감염병 위기 등 비상상황에서의 돌봄시설의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한, 아동을 돌보는 시설은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기관장 재량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코로나19에 대비한 엄격한 지침이 적용되었고, 감염병 등에 대응할 매뉴얼 마련을 제안하였지만, 무엇보다 초등돌봄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강지원·최혜진·임완섭·황안나·안영·조동훈·김우성, 202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21. 1. 19,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 - 학교돌봄터 사업.
- 김송이·황선영, 2021,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의 역할과 과제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68(2): 225~258.
- 김은정·오신희·이희현·이혜숙,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2,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 2021년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 이혜숙·신인철·유삼현·이영주, 2019,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 이혜숙·이영주, 2018, 「서울시 방과후 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서울연구원.
- 장혜승, 2020,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 교육정책과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 정미나·원일·장안서·강지원·박지숙·이혜숙·이희현·박석환, 2020,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모델 개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 최윤경, 2020,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이슈브리프, 2020년 여름호: 63~69.
-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 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은, 2021. 7. 14., “문 닫힌 수도권 초등학교…‘긴급 돌봄’ 신청 몰려 북새통”,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3576.html>
- 김지영, 2020.04.02., “일본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교육 분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기획기사, <https://edpolicy.kedi.re.kr/firt/boardView.do?strCurMenuId=54&nTbBoardArticleSeq=825633>
- <https://blog.naver.com/mohw2016/222555425187>(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edpolicy.kedi.re.kr/frt/main/main.do>(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2.do>(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liBgcolor0>(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A Study on the Analysis of School-Aged Child Care and its Implication of Living with COVID-19**

Hyesook Lee·JinYoung Moo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nd analyze the care of school-age children living with COVID-19, and recommend childcare improvements. For the study, we analyzed th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2019 to 2022. Furthermore we examined the policy of major overseas countries in Canada, Denmark, and Japan. In May 2022,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1,183 parents. The survey will compare 2021 and 2022 to identify the state of care for children living with COVID-19.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are service agency staff and par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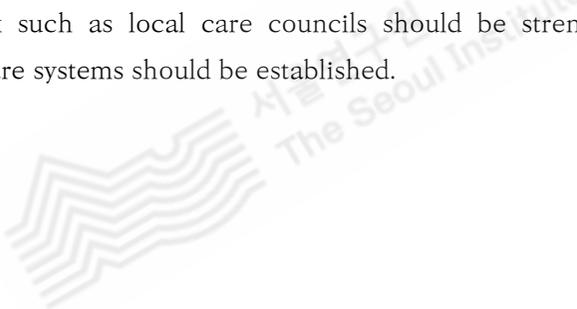
The main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iculty of caring for children due to COVID-19 decreased in 2022 compared to 2021, but still, more than 40% of them are complicated, and the additional care costs increased. Second, although the proportion of children spending time alone (or with their siblings) has decreased compared to 2021, 13% of school-age children still spend time alone. More than one in 10 children spend time alone in situations that requiring care. This absence of care is generally among the low income and dual-income families in the northeast region. Given the diversity of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 to prepare care supports in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s crisis. Third, the survey showed that many

---

112

parents want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care service institutions. It is also needed in the near distance to simplify the eligibility criteria so that anyone can use it. In the FGI, field experts need a field manual and a systematic countermeasure system. Furthermore, they call for strengthened networks between community agencies and increased school roles. It requires an expanded activity and a suitable incentive system of jobs. Parents hoped to provide high-quality food, expand care space, and support uninterrupted care.

The conclusions that combine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lexible and elastic care requiring in response to the regularization of disasters. First, caregiving requires infrastructure maintenance. For this purpose, the maintainer must expand the maintenance space and extend the maintenance time. Seco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ervices for care without gaps. It must expand maintenance costs such as vouchers and cash to reduce maintenance gaps. Third, the comprehensive care system should strengthen. First, network such as local care council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edictable car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

# Contents

##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 **02 Response and Strategies**

- 1\_Current State
- 2\_Government's Coping Strategies

## **03 School-Aged Child Care Survey**

- 1\_Outline of the Survey
- 2\_Survey Results
- 3\_Conclusion

## **04 Focused Group Interview**

- 1\_Outline of the FGI
- 2\_FGI Results
- 3\_Conclusion

## **05 Directions and Strategies**

- 1\_Directions and Principles
- 2\_Strategies
- 3\_Policy Suggestions

---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연 2022-PR-08

---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2년 12월 22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719-6 9337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